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 석사 학위 논문

학급활동을 통한 통합적 논술지도
방안 및 효과 연구

- 중학생을 중심으로



2008년 8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학과

박주애

교육학 석사 학위 논문

학급활동을 통한 통합적 논술지도
방안 및 효과 연구

지도교수 채영희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8년 8월

부경대학교대학원

국어교육학과

박주애

인준서

박주애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08년 8월 31일

주심 문학박사 채 영 희 인

주심 문학박사 김 희 섭 인

주심 문학박사 남 송 우 인

목 차

I. 서론	1
II. 선행연구 및 연구문제 제기	4
1. 선행연구	4
2. 연구문제 제기	11
III. 이론적 배경	13
1. 논술의 이해	13
2. 쓰기 및 논술교육 이론	18
2. 통합적 논술교육	25
IV. 중학교 논술교육의 현황	32
1. 교사의 설문	32
2. 학생의 설문	42
V. 학급활동을 통한 통합적 논술교육 적용	50
1. 대상학교 및 학생 모델 선정	50
2. 쓰기학습 모형 구안 및 실제 지도	52
가. 논술활동을 위한 준비단계	52
(1) 논술에 대한 개념인식 및 동기부여	52
(2) 방법 설명 및 활동의 시연	54

나. 실제 논술활동 단계	58
(1) 논제과약 및 읽기 활동	59
(2) 1차 논술문 쓰기(개별활동)	63
(3) 상호평가 및 첨삭하기(개별활동)	67
(4) 토론하기 활동을 통한 논술활동 지원(전체활동)	69
(5) 2차 논술문 쓰기(개별활동)	73
다. 마무리단계 - 논술활동에 대한 평가 및 설문	77
3. 실제 활동 후의 태도변화 및 효용성 검증	77
가. 설문을 통한 논술태도의 변화	78
나. 논술문의 향상 정도의 검증	85
VI. 결론	91
※ 참고문헌	93
< 부록 1>	
1) 사전 설문지(교사용)	95
2) 사전 설문지(학생용)	97
3) 사후 설문지(학생용)	99
< 부록 2> 개요짜기 및 실제 논술문 쓰기의 예시 및 활동 학습지	101
< 부록 3> 여러 다양한 교과와 관련된 활용가능한 논제들	103
< 부록 3> 통합논술교육의 자료를 참고할 수 있는 사이트들	106

표 목 차

표 III-1. 범교과적 작문의 특성	30
표 IV-1. 교사설문 응답자의 대상 파악	33
표 V-1. 논술의 단계와 실제 적용단계의 비교	54
표 V-2. 실제 논술활동 단계	58
표 V-3. 논술문 평가기준표	85
표 V-4. 학생 1차 논술문과 5차 논술문의 평점 비교	88
표 V-5. 1회 논술문과 2회 논술문의 평균점수 비교	90

그 립 목 차

그림 V-1. 논술문 1차 작성지	63
그림 V-2. 2회차 1차 논술문	65
그림 V-3. 3회차 1차 논술문	66
그림 V-4. 1차 논술문에 대한 상호첨삭	68
그림 V-5. 상호첨삭이 반영된 2차 논술문	69
그림 V-6. 2회차 토론발표지	70
그림 V-7. 토론단계 활동 평가지	73
그림 V-8. 1회차 1차 논술문	75
그림 V-9. 1회차 2차 논술문	76
그림 V-10. 1회차 논술문과 5회차 논술문 비교	86
그림 V-11. 논술능력의 향상정도 분석 그래프	87

A study on the teaching methodology and effectiveness of
integrated dissertation through class activities
- focused on students in middle school

by Juae Park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In modern society which is based on knowledge and the age of information, the feature required is to solve problem self-initiatively using knowledge and information objectively, logically. so, dissertation become the center of public attention as the method of cultivating men of talent among various school curriculum,

However, education of dissertation in school have not been executed properly yet and have been not applied in education continuously and as integrative, also, the research of integrated teaching except regular curriculum is wholly lacking in school education environment

As new direction of dissertation education, finding the teaching method through class activities, applying them and validating effectiveness is the aim of this study. especially each subject have been instructed by separate teachers dedicated in specific subject in secondary education course. so, continuous and integrated education of dissertation is not performed. here I tried to have dissertation education through class activity which is basic element in school, this study is worthy as methodology which can be executed for dissertation education by all teacher, It can be shown that both teachers and students recognized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dissertation according to questionnaire which had made up for students before applying program (teacher 99%, student 91%),

the first of the effectiveness can be obtained by dissertation education is an ability of integrated thought(teacher 84%, student 43%) on the other hand, there

are gap between experience of teaching dissertation (27%) and taking a dissertation lesson(52%).

Teachers have opinion that securing time(39.5%), granting motif (22.2%), program development (18.5%) can be a foundation for dissertation education, also, a number of teacher(80.3%) answered that dissertation education will be effective through class activities.

Therefore, 8 week program with class activity had been applied to this research, the attitude change of student and improvement of dissertation ability were validated as an effect of this program as below

1 week, grant motif for dissertation and explain basic concept

2 week, teach a method of dissertation and demonstration

3 week ~ 7week, continuously apply program for dissertation

8 week, validate effectiveness of program with making up question

Analysing topic for discussion, reading-material, making 1st statement, mutual evaluation/correction , discussion and making 2nd statement was applied in actual class activity as 5 step.

As a result of program, there was meaningful variation in attitude of student for dissertation, the rate of respondent who get interest and ability improvement in dissertation is (87%),(81%) of student answered that the can recognize the method. who get a effect through class activity is (54%), moreover a number of student answered that this program is very interesting (73%), there was meaningful improvement in dissertation ability, average score was increased less than 2 in 5th statement compared with total average in 1st statement, also the average score of each item was improved in sequence of score as follows the comprehensive faculty > ability of demonstration > originality

Accordingly, this study through class activity can be meaningful as the method for effective education program and can be new method on the view point from a different angle in the future. to apply integrated education of dissertation continuously, not only dissertation program development through various curriculum but also training program development/execution for teachers are required, it is thought that systematical support and teaching material improvement in school curriculum should be followed.

I. 서론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다. 다른 사람과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언어라는 도구를 활용하여 다른 사람과 서로 의견을 교환한다. 그러므로 의사소통과정은 인간의 사회적 존재로서의 활동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기본가정이 되는 것이다.

교육은 학습자가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본소양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목표가 있으며, 국어교육은 의사소통의 도구로서 언어를 부러쓰고 갈무리하는 직접적인 교과가 된다. 국어교육은 언어로서의 국어에 대한 지식 교육, 국어로 이루어진 문학작품으로서의 교육과 함께 인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의사소통의 교육을 하여야 하며, 사회적 요구에 비추어 봤을 때 생활국어로서의 의사소통에 관한 교육은 다른 영역에 대한 교육에 비해 매우 활발히 요구되고 있고, 또 교육되어야 하는 분야이다.

의사소통의 네 영역 중 듣기, 읽기, 말하기의 세 영역의 활동을 아우르면서, 학생들에게 종합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을 바탕으로 문제해결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쓰기이며, 쓰기 영역에서도 논술 교육은 의사소통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계발할 수 있는 교육영역이다. 논술교육을 통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사고 능력과 문제해결력을 키울 수 있으며, 비판적인 독서와 체험을 사고능력과 조화시킬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생각을 글로써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효율적인 논술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의 언어세계를 확장시켜 줌으로써 사고를 확대시킬 수 있다. 그리고 논점을 파악하고 자신의 주장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논거를 제시함으로써 상대를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또한 논술을 통하여 창의적 사고를 신장시켜 여러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질 수 있다.

현 교육과정 속에서 국어교육은 이를 실현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

나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교사와 학생 간, 학습자 상호간에 의사소통과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학습자 중심의 수업이 진행되어야 하며, 교사의 강의식 수업은 지양되어야 한다. 점차적으로 이러한 점이 교육평가에 반영되어 대학입시에서도 논술 혹은 심층 면접의 비중을 높여 학생들의 종합적인 사고력과 문제해결능력을 평가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며, 학교 현장에서도 결과 평가에서 벗어나 수행과정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개선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

의사소통교육은 국어교육과 함께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하여 통합적으로 지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어교육이 지원하고 주도해야 할 여러 가지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국어교과 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와 학교 교육과정의 여러 분야에서 의사소통교육이 통합적으로 지도될 수 있도록 쓰기교육의 여러 모형이 구안되어야 하는 필요성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특히 중등교육과정은 초등교육과정과는 교육과정 운영의 형태가 다소 다르다. 초등교육과정은 교과활동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육활동이 정해진 학급에서 담임선생님과 함께 운영된다. 반면에 중등교육과정은 교과활동과 학급활동이 확연히 구분되며 각 교과를 독립적으로 학습해 학습자가 직접 교과를 통합하여 사고하고 인지하여야 한다. 이것이 각 교과활동을 통해 학습한 것을 통합적 사고과정으로 이끌어 종합적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표현하도록 지속적으로 도와주어야 하는 학급교사의 역량 강화가 필요한 이유라 하겠다.

또한 중등학교에서 학급교사는 모두 교과교사이기도 하다. 이 또한 현재 우리나라 교육이 통합교육을 지향하고 있는 시점에서 모든 교과에서도 주어진 과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교육활동을 지향해야 하는 이유이다. 이에 발맞추어 점차적으로 교과활동에서도 문제해결적, 서

술적 활동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이러한 추세가 평가에도 반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종합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력 및 논술력은 단기간에 습득되어지는 능력이 아니다. 꾸준한 읽기, 생각하기, 쓰기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학급활동에서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의 구안이 절실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논술교육이 국어교과와 함께 학생들의 학급활동을 통해 효율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학급활동을 통한 통합적 논술교육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실태를 파악하고, 프로그램을 구안하여 적용해본다. 또 구안된 프로그램이 어떤 효율성을 가지며, 또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를 위해 국어과나 국어교사가 할 수 있거나, 해야 할 소임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하여 학생들의 모든 생활영역 및 각종 학교활동 영역에 창의적, 비판적, 종합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통합적인 프로그램으로서 국어교육의 중요한 위치가 다시 한 번 제고되길 바란다.

Ⅱ. 선행연구 및 연구문제 제기

1. 선행연구

성낙수(1998)의 연구는 중등학교 논술교육에 대한 연구이다. 이 연구는 중, 고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논술교육에 대해 그 의의와 교육내용을 논의해보려는 목적을 보인다. 논술을 지도할 때 다루어야 하는 내용을 10가지로 나누어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바람직한 평가 방안의 여러 형태를 제시한다. 이를 통해 논술이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습득될 수 있으며, 논리학적인 이론 뿐 아니라 문체론·문장론·정서법 등의 지식을 갖추고 독서와 경험을 통하여 많은 정보화 학습을 지녀야 한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또 다양한 평가방법의 제시를 통하여 자신 또는 동료나 교육자가 적절한 평가를 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논술에 도움을 얻고자 하였다. 그러나 실제 논술을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구안되지 않음으로써 현장에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향욱(1994)의 연구는 중학교 쓰기 교육의 실태분석과 지도방법에 대한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의 결과를 살펴보면 작문의 중요성은 학생, 교사 모두 절실히 느끼고 있지만 교수-학습단계에서는 적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이유로 제대로 된 작문지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적절한 학습 자료가 부족함을 논의하고, 논리적 사고방법 및 문장전개방법의 지도 부족과 표현하기의 집중적인 지도의 필요성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제6차 교육과정의 중학교 1학년 1학기 국어교과에서 교사들이 지도해야 할 학습요소와 1차시 분의 교수-학습지도안을 제시하였고 쓰기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하였다. 논

술교육은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실제 프로그램 구안 시에는 1차시에 해당하는 지도안만 제시되어 단회성의 교육프로그램이어서 다양한 학습활동으로의 프로그램 구안이 필요하다.

이영희(1999)의 연구는 중학생을 위한 소집단 활동중심의 쓰기교육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쓰기 영역이 모든 교과 학습의 기초가 되는 종합적인 교육활동임을 인지하고 있다. 이에 과정중심의 쓰기교육 이론을 고찰하여 인지적 과정의 쓰기모형을 단계별로 분석하였고, 이를 쓰기교육에 접목하여 소집단활동을 통한 쓰기 교수·학습과정안을 만들었다. 또 중학교 쓰기교육의 실태를 알아봄으로써 쓰기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설문결과 교사와 학생 모두 쓰기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나 교사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쓰기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고 학생들은 흥미부족과 방법에 대한 무지로 쓰기를 싫어한다는 응답을 보였다. 이러한 교육상황을 고려하여 수업시간 중에 쓰기를 할 수 있는 수업안을 만들어 실제 수업상황에서 쓰기가 가능하게 하였다. 이 연구는 실제 4차시의 국어과 활동을 통하여 쓰기 학습을 실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고 있으나 실제 학습시에 활용된 상호작용적 프로그램의 구체적 방법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채경자(2000)의 연구는 중학생 논술, 작문을 중심으로 효과적인 논술지도 방법에 관한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논술문 쓰기를 하나의 문제해결과정으로 파악하고 논술문 작성과정에 필요한 학생들의 능력을 신장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먼저 선행연구(1995, 1997, 1999)를 통하여 논술쓰기와 쓰기지도의 실태를 파악하여 논술지도에 대한 전략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실태분석의 결과 교육현장에서는 결과중심의 논술지도로 일관하고 있어 전략을 활용한 과정중심의 논술지도가 필요하며, 작문교과를 통한 논술지도의 부족을 들고 있다. 또 쓰기과정에 요구되는

여러 가지 전략을 지도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여 전략적 논술쓰기의 단계를 세 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에 적합한 전략을 구안하였다. 단계별 논술쓰기의 전략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점은 돋보이나, 실제 활동을 통한 검증이 없어 교육환경에 적용하고 일반화하기 어렵고 그 효과도 확인해보기 어려운 문제가 지적된다.

이기행(1999)의 논문은 고등학교 논술지도에 관한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인문계 고등학생들의 실제 논술문 작성 실태를 파악하여, 교사와 학생들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논술능력이 향상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실제 논술을 실시, 표현력과 사고력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표현력에 매우 낮은 성취도를 보였으며 내용 또한 천편일률적이고 논리력과 분석력 모두 결여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표현력과 사고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전략을 제시하였다. 문제해결과정의 각 단계별로 요구되는 전략, 표현기능과 사고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 학습자 중심으로 전이되는 전략, 교사와 학습자간 상호작용을 통한 전략이라는 4가지 기본원리를 바탕으로 8단계의 단계적 논술지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논술의 통합적 지도의 필요성이 제시되며, 구체적 논술교육의 방법 모색을 위해 학생들의 논술능력을 면밀하게 평가·분석한 점은 이 연구의 큰 장점이다. 또한 3차시에 걸쳐 실제 학습모형을 구안함으로써 적용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논문이어서 중학생에게 적절한 논술교육의 형태로 적용하기는 문제가 있다.

박철준(1997)의 연구는 논술문 짓기 지도에 관한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논술지도의 여러 어려운 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학생들이 실제로 지은 논술문을 통해 고등학생의 논술문 작성 수준을 점검해보고, 학생 스스로 논술문을 쓰지 못하는 원인을 찾아서 서로 돌려가며 닦아보고 반성하게 하

여 논술문 짓기 능력을 기르게 한 직접적인 방법을 보여주고, 단계별 글담기의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 단계를 통해 논술문 짓기의 실제 글쓰는 단계와 마무리 단계를 제시하고, 쓰여진 논술문을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이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표를 제시하여 논술문 기능향상의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로써 학생의 흥미 유발 뿐 아니라 논술의 향상과 함께 교사의 논술지도부담도 줄이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구안과 평가 기준표를 제시하였다는 점은 이 연구의 주목할 내용이나, 실제 프로그램의 적용 이후 학생들의 논술문을 평가기준에 의해 검증해보지 않음으로써 모형의 제시로서의 의미만 있을 뿐 실제효과의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아쉬운 점이다.

이형근(2003)의 연구는 논술교육을 위한 쓰기영역의 지도방안 연구이다. 이 연구는 학교 교육과정에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논술교육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특히 논술교육이 입시준비 이상으로 학교교육에서 적극 수용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교과융합 모형의 타당성을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논술교육이 범교과적 성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과목에서도 논술교육을 책임지려 하지 않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여기에서 국어과가 논술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 학생들의 사고력 향상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학생들의 범교과적 지식, 생활에서 체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자신의 신념을 표현할 수 있는 수업 모형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교과에 적용할 수 있는 수업지도안을 작성 제시하고, 소집단 토의를 통하여 한편의 논술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연구는 학교교육과 국어과 교육에서 논술 교육이 실제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탐구라는 점에 초점이 있다. 그러나 이 연구 역시 제시된 모형을 통하여 실제로 학생들에게 적용한 결과를 확인할 수 없어 그 효과를 검증해보기 어렵다.

김길영(2000)의 연구는 창의성 신장을 중심으로 한 고등학생 논술문 지도방안 연구이다. 이 연구는 논술을 작문의 글쓰기 능력이 아니라 창의적 사고와 합리적 의사결정력, 문제해결력을 지닌 학생을 길러낸다는 본질적 목표를 인식하지 못한 데서 기인하고 있다고 본다. 이에 설문조사를 통해 논술교육에서 중시해야 할 점을 도출했다. 설문조사 결과 학생·교사 모두 논술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논술교육을 통해 논리적 능력과 창의적 능력을 신장해야 할 능력으로 보고 있는 점을 도출해냈다. 이에 따라 논술문 쓰기의 단계를 확산적 사고과정 - 수렴적 사고과정 - 실제쓰기 과정으로 나누어 구체적 지도내용과 절차를 모색·적용한 후 그 결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평점평균은 응결성>응집성>창의성 순으로 나타났으며 향상정도는 창의성>응집성>응결성 순으로 나타나 논술 준비도는 표현력과 관련된 응결성 항목이 가장 높은 편이며 창의성 항목의 향상 정도가 가장 높아 창의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와 교육이 꾸준히 계속되어야 함을 의미함을 제시하였다. 논술의 항목을 세분화하여 능력향상을 위한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모형을 구안하였고, 이에 대한 실제 활동 후의 검증도 거친 연구여서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이와 같은 방향으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부분이라 볼 수 있다.

이남주(2000)의 연구는 협동수업과 통합교육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논술 지도방법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논술이 내용과 논리, 그리고 표현을 중요한 구성요소로 하고 있으나, 논리와 표현에 치중되어 내용에 대한 문제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여 협동수업을 활용한 교수법과 네 가지 언어사용 기능의 통합교육을 통한 논술교육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협동 수업 교수법 모형을 구안하였다. 그리고 스키마 이론을 바탕으로 읽기 지도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작문의 모형과 문제해결과정으로서의 작문지도방

향을 제언한 후 읽기와 쓰기의 통합지도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후 토의를 통한 말하기와 듣기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각 교과가 통합교과적으로 논술에 접근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나 단지 각 교사가 따로따로 학생에게 관련 내용을 제시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엮는 작업은 학생에게 일임함으로써 실제 논술에 통합적 사고가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점에 있어 부족한 면들이 보인다. 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능시험의 전후에 입시를 위한 방법으로 논술의 원래 취지를 무색하게 하였다는 점도 지적해볼 수 있다.

우형식과 임홍준(2000)의 연구는 자기 주도적 논술 능력 신장을 위한 교수·학습 모형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국어과가 학습의 과정과 결과가 범교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도구 교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스스로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 다양한 지식 정보를 논리적,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에 논술을 통해 학습자의 창의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향상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고, 학습자가 자기주도적인 논술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교수·학습의 모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현장연구방법을 수용하여 개발된 모형을 통제된 학습집단에 적용하고 그 효과를 측정하였다. 기초조사결과 논술에 대한 학습자들의 흥미와 자신감이 아주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구실시 후 흥미와 논술에 대한 자신감이 유발된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소집단 협동학습 모형을 설정하고, 단계별 논술지도를 실시하였는데 학습자 스스로에 의한 자기 주도적인 탐구학습 능력과 창의적 사고능력이 향상됨과 동시에 타 교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도방법은 전문가나 학습자들의 글 가운데 잘된 글을 보고 그 속에서 글을 쓰는 방식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방법이 효과적임을 확인했고, 이 모형을 통해 협동심을 배양할 수 있었고 학습자 자신의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세우는 능력

이 신장됨을 알 수 있었다. 지속적인 독서활동과 모둠활동을 통한 자기주도적 논술능력의 향상의 의미는 충분하다. 그러나 이 연구 역시 일반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통합교과의 필요성이 언급된 것에 반하여 실제로 구체적인 통합교과적 논술활동으로의 접근은 미흡했다고 볼 수 있다.

이경선(2003)의 연구는 종합적 사고를 중심으로 한 논술지도 방법 연구이다. 이 연구는 논술의 궁극적 목적을 고등사고 배양으로 보는 관점에서 출발하여, 학생들이 다방면에서 종합적 사고를 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연구를 제시했다. 먼저 논술 교육의 현황을 살펴 보아 논술지도의 문제점을 인식하였고, 논술교육의 수월성을 돕기 위해 논술의 개념을 문제발견, 문제해결, 논리적 사고, 종합적 사고, 글쓰기로서의 논술로 정리하였고 논술교육 내용을 지식, 기능, 실제 태도 요인으로 나누어 체계화하여 제시하였다. 또 논술 교육의 목표, 논술의 교육적 목표와 평가 항목, 논술의 주제를 살펴봄으로써 논술지도방향을 제시하였고, 실제 논술교사의 논제들이 통합교과적 문제들로 학생들의 종합적 사고력 향상이 중요시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실제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종합적 사고향상을 위한 논술문 쓰기 연간지도계획과 논술지도 교수-학습 지도안을 제시함으로써 사고력 배양의 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논술을 평가 항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연계된 논술지도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토의 및 토론 형식의 수업을 지향하였고, 다양한 분야의 배경지식 습득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논술의 지속적 학습활동을 위해 연간지도계획을 수립하였다는 것과 여러 다양한 논제들이 제공되었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의를 파악할 수 있으나, 논술이 종합적 사고력을 배양하는 학습활동이라는 기본적인 개념에 반하는 입시의 한 방법으로서의 접근성이 짙게 나타난다. 또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구안한 연구라는 점에서 중학생을 위한 지속적 논술

활동에 대해 새로운 연구의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2. 연구문제 제기

앞의 여러 연구들은 논술교육과 관련하여 의의있는 여러 내용들을 제시하고 있다. 의사소통영역 중 쓰기영역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의미있는 연구결과들을 살펴볼 수 있었다. 특히 쓰기영역 중에서도 문제를 파악하여 해결해 나가는 마지막 단계로서의 논술교육과 관련된 결과들을 살펴볼 수 있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구분되는 중등학교에서 실시한 설문에서 학생과 교사 모두 논술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으나, 실제로 논술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인지함으로써 논술교육의 중요성과 적절한 논술지도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나타내었다. 또 이를 바탕으로 하여 여러 논문에서 논술과 관련된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여러 모형들이 제시되었으며, 이를 실제 교수-학습지도안으로 마련하여 현장에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구안하고 있다. 또 현장에 적용된 결과 논술지도에 긍정적인 면을 보이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교수-학습모형을 구안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논술의 여러 영역 중 꼭 필요한 영역을 표현력, 논리력, 창의력으로 구분하였을 때 표현력 신장에 초점을 맞추기도 하고 논리력에 초점을 맞추어 논리적 사고 신장, 문제해결력 신장, 자기 주도적 능력 신장에 초점을 두어 구안하기도 하였다. 또 창의력 신장에 초점을 두어 다른 어느 영역보다도 창의력 신장이 논술지도를 통해 많은 변화를 보임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또한 각 연구에서 논술이 국어교과에 국한된 능력만을 필요로 하는 영역이 아님을 인지하고 있다. 논술이란 여러 영역에 대한 배경지식을 바탕으

로 생활 여러 영역에서 어떤 문제를 인식하였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파악하고 이를 종합적인 사고를 통하여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함과 동시에 언어영역으로서 표현되어야 하는 영역이다. 따라서 논술이란 각 교과 뿐만 아니라 학교교육 전반에서 교육과정을 통하여 의미 있게 교육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각 교과에서의 협동교육이 필요함과 동시에 말하기, 듣기, 읽기와 더불어 쓰기교육이 통합되어야 바람직한 논술교육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논술은 각 교과를 통해 개별적으로 지도될 것이 아니며, 특히 국어과에서 모두 지도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어느 교과, 어느 영역의 교사도 책임지려하지 않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논술의 중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만큼 책임지지 않으려 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남주(2000)의 연구에서 협동수업으로서 통합교과적 논술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나, 이는 배경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에서만 여러 교과영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외의 연구들도 모두 그 정도의 연구로 그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삼을 수 있다. 즉 좀 더 적극적으로 국어교과의 방법을 도구교과로서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다른 교과 뿐만 아니라 학교교육의 매우 중요한 영역인 학급영역에서도 논술교육이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질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생각되는 통합적 논술교육의 연구를 진행해보려고 한다. 특히 중등학교 중 고등학교보다는 중학교에서 좀 더 통합적인 교육이 먼저 기본적으로 이루어져 고등학교 과정의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중학교 학교현장에서 범교과적 논술교육을 국어교과 영역 뿐 아니라, 학급활동 영역에서 구안하여 시도해보았다.

Ⅲ. 이론적 배경

이 장에서는 학급활동을 통하여 통합적인 논술활동을 적용하고자 할 때 바탕이 되는 여러 이론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논술의 개념과 성격, 기능들을 살펴보고, 논술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한 후, 논술문 쓰기 의 각 이론과 통합적 언어교육이론을 탐색하여, 여러 이론들이 본 연구에 끼치는 영향과 본 연구의 위치를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학급 활동을 통한 통합적 논술교육의 본 프로그램이 여러 이론에서 제시한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론적 모색을 시도할 것이다.

1. 논술의 이해

논술의 지도모형을 구안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기 전에 먼저 논술의 개념과 특성에 대한 기본이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절에서는 논술의 기본 개념과 성격 및 기능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학급활동을 통해 바람직한 논술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밑바탕을 마련해보고자 한다.

가. 논술의 개념

전통적으로 글을 쓰는 행위는 ‘작문’ 또는 ‘쓰기’로 불리워 왔고, 학교 교육에서도 ‘작문’이나 ‘쓰기교육’이라는 명칭으로 실시되어 왔다.¹⁾ 그리고 아직도 논술이라는 형태는 국어교과의 ‘쓰기’영역 중 설명, 묘사, 서사 등의 한 분류로서 ‘설득을 위한 글쓰기’ 정도로 교육과정 내에서 학습되고 있다.

논술의 개념에 관해서는 원진숙(1995)은 ‘필자가 보이지 않는 독자를 상정하여 자신의 신념이나 의견을 받아들여도록 독자를 설득하는 글’로 정의

1) 이형근(2003), 10p

하였고, 윤용이(1996)는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에 기초하여 문제를 발견하고, 종합적·논리적 사고를 통해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의 글로 표현하는 글쓰기’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성낙수(1997)는 논술을 ‘어떤 사물에 대하여 옳고 그른 것을 밝혀 가르거나, 어떤 계획을 세우거나, 일을 함에 있어 필요한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타산하고 검토하여 말하거나 적는 것’으로 정의하였다.²⁾ 이형근(2003)에서는 ‘기존의 설득하는 글과 다름이 없는 글’이라고 하였으며, 고등학교 작문교과서에서도 ‘어떤 문제에 대하여 자기 나름의 주장을 내세워서 상대방을 합리적으로 설득시키는 글쓰기의 대표적인 형식’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논술은 단순히 자신의 주장을 밝혀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인생 전반에 걸쳐 학습된 다양한 지식을 종합하여 주어진 문제에 대해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여러 방법들을 모색하고 탐색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을 표출하도록 하는 목적이 있다. 이처럼 논술은 어떤 일이나 현상에 대하여 문제를 발견하고, 원인을 규명하며, 결과를 예측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일련의 과정을 지니며, 이는 필연적으로 논리적·종합적 사고를 요구한다. 논술 서술자는 주어진 주제와 정보 속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바가 무엇이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스스로 분석하고 설정하는 과정 속에서, 사물들의 관계를 인식하고, 사물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며,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들에 대해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는 창조적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러한 논술 경험은 서술자의 사고력을 신장시켜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게 한다. 따라서 논술교육을 경험한 학습자들은 논술경험을 통해 부딪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며, 고등사고력을 신장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일상의 문제 상황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방법

2) 이형근(2003), 10p, 재인용

을 알게 되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이지운, 2007)

따라서 논술은 ‘논리적 서술’을 넘어서서 여러 각도에서 사회현상을 바라보며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한 상황에서, 주어진 문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스키마를 스스로 종합하고 더 나아가 창의적인 사고를 통하여 논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자기 주도적 능력이며, 이를 여러 사람들과 의견을 주고 받으면서 가장 적절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선택하여 결정하는 복합적인 사회활동이라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논술은 그 자체만으로도 다양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나. 논술교육의 현황

논술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깊은 연원을 가지고 있으며, 동양에서의 전통적인 논술은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어 왔는데, 특히 과거에서 경전의 암기를 주로 하는 明經科에 비해 오늘날의 논술고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製述科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진 것을 보면 역사적으로도 논술이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서양에서의 논술은 수사학의 한 분야로 기능한 것으로 보인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는 ‘논문식 시험’이 전통적인 평가방식으로 정착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 특히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논술시험으로 프랑스의 바칼로레아(Baccalaureat)와 독일의 아비투어(Abitur)를 들 수 있다(이남주, 2000;11)

우리나라에서도 지식 암기 위주의 수렴적 사고를 중시한 교수-학습방식이 주류를 이루어옴으로써 학생에게 고정적인 사고의 판형을 형성시킴과 동시에 논리적·창의적·비판적 사고력을 제대로 길러주지 못한다는 비판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 결과 종래의 교육방식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통해 중등학교의 교육과정 전반에 걸친 반성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수행평가의 도입과 더불어 대학에서는 교육방식의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논술고사를 중

요한 입학 전형 도구로 삼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러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논술교육은 대학입시나 각 교과목의 평가방법으로의 목적이 강조되면서, 원래의 취지인 종합적 사고를 통한 자신의 의견 개진이라는 측면이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논술교육의 보다 정확한 의미는 ‘논술식 교육’이다. 이는 폭넓고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사고와 독창성을 함양하는 교육방식이다. 그러나 현재 일선 학교의 논술교육은 또 하나의 입시, 평가 과목인 ‘논술 교과’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논술을 지도하는 교사는 국어 교사로 제한되어 있고, 논술을 글쓰기의 연장선에서 한 방법으로 인식하고 있다(이경선, 2003;10). 또한 논술에 관한 교육은 정규교과목의 장에서 밀려나 진학을 위해 꼭 필요로 하는 몇몇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필요로 하는 일부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선택적으로 가르쳐지고 있다. 그로 인해 논술교육은 모두가 그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지도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이남주, 2000;2, 재인용).

물론 논술의 중요성이 여러 측면에서 중요하게 인식되면서 학교현장에서도 교수-학습활동의 형태가 많이 변화되어 가고 있다. 각 교과목에서도 소집단활동을 통한 토론활동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교과 성취도를 확인하는 평가의 형태도 단회성이 아닌 수행평가로 학습자의 생각을 논리적이고 종합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예전에 비해 많이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기보다 수행평가의 한 방법으로 인식되거나, 대학진학의 도구로 인식되면서 논술교육은 평가를 위해 기능을 익히는 교육의 분야로 더 많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발산적 사고와 표현으로서의 언어활동인 논술의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논리적·종합적·창의적 인간양성이라는 교육목표를 위해 논술평가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논술평가가 실시되기 때문에 논술에 대

해 교육하는, 목표와 방법이 거꾸로 된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은 논술의 필요성을 인식하기는 하였으나 실제 교육현장에서 가치있게 적용하여 실천하려는 준비와 노력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다. 논술교육의 방향

현재 논술지도 방법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논술이 지니고 있는 통합교과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그 지도는 통합교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논술학습은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서 모든 활동을 통하여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교과에 부분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여러 교육과정에서 연계되어 지도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많은 학교들이 논술교육을 국어교사에게 일임하여 작문교육의 한 하위분야로 인식함으로써 실제로 인생 전반에 걸친 가치관의 형성과 세계관의 표현이라는 논술의 원래 목적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학생들도 또 하나의 교과쯤으로 생각하고 단순하게 모범답안을 작성하는 획일적 표현방법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강의식 일제 학습에 비해 새로운 형태의 수업으로 오히려 귀찮게 여기는 경향도 있다.

그러나 논술교육은 이제 종합적·논리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인간의 창의적인 고등정신 기능을 길러 자기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을 양성하는 전체 교육의 목표를 위해 반드시 접근되어야 하는 분야가 되었다. 따라서 논술은 국어교과 뿐만 아니라 모든 교과가 전체교육과정 안에서 팀티칭의 형태로 ‘논술식 교육’으로 지향하여야 하며, 교과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의 여러 다양한 활동, 즉 학급활동이나 특별활동 등을 통하여도 유기적으로 실시되어 통합되어짐으로써 학생들이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논술의 능력을 자연스럽게 터득하고 배양할 수 있어야 한다.

2. 쓰기 및 논술교육 이론

가. 직접교수법³⁾

직접교수법은 (Bauman)에 의해 제안되었고, 5단계의 전략인 안내·예시·교수·교사-학생 활동·학습자 독자적 연습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직접교수법은 행동주의 이론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행동주의 심리학의 성과를 교수 설계 원리에 반영하였다. 직접교수법의 교수 설계원리는 학습 과제의 개발·투입과 교사-학생 상호작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직접교수법의 교수·학습절차는 다음과 같다.

◎ 단계 1 : 도입(orientation) - 교사는 수업내용을 결정하고, 선행학습을 검토하며, 수업목표를 설정하고, 수업의 절차는 결정한다.

◎ 단계 2 : 제시(presentation) - 교사는 새로운 개념이나 기능을 설명하거나 시범을 보이고, 과제의 시각적 표상(VRT: visual representation of the task)을 제공하고, 학생의 이해정도를 점검한다.

◎ 단계 3 : 구조화된 연습(structured practice) - 교사는 연습문제를 가지고 소단계로 풀어가면서 집단으로 지도하고 학생은 질문에 대답한다. 교사는 학생들의 잘못에 대해 교정적 피드백을 제공하고 정확한 대답에는 강화를 주며, VRT를 참조시킨다.

◎ 단계 4 : 지도된 연습(guided practice) - 학생은 반독립적으로 연습하며, 교사는 순회하면서 학생들이 연습하는 것을 살피고, 칭찬과 지도로 피드백을 제공하며 학생들로 하여금 VRT를 상기하도록 시킨다.

◎ 단계 5 : 독립적 연습(independent practice) - 학생들은 스스로 여러 번에 걸쳐 연습하며, 연습 간의 피드백을 통하여 교정한다.

3) 채경자(2001)의 '4장. 쓰기이론의 검토'를 인용하여 재정리하였다.

직접교수법은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논술학습에 적용함에 있어 문제점이 있다. 논술의 기본개념이나 구체적 방법 등을 학습하는 과정에 있어서 는 그 효과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학습자들이 직접 자신의 글을 작성하는 단계에서 추상적 사고, 창의성, 문제해결과 같은 종합사고적인 활동을 유발시키는 학습모형으로는 바람직한 모형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스키마 이론

스키마는 우리의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는 경험의 총체이다. 스키마를 우리가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는 세상일에 대한 기억이라고 한다면, 이 ‘경험’에는 크게 구체적인 특정 사건과 연관되는 일화적 지식(episode knowledge)과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사실로부터 추상화 또는 일반화된 기억 속에 남아있는 개념적 지식(semantic knowledge)이 포함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스키마란 우리 기억 속에 있는 정보들을 연결시켜주는 지식구조이며, 학습자가 과거의 경험이나 학습으로부터 이미 가지고 있는 일종의 개념구조 또는 기본적인 틀이라 할 수 있다.

스키마 이론이 제공하는 쓰기교육에 시사하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읽기와 쓰기를 통합하여 지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시켜 주었다. 읽기를 통해 필자의 스키마를 확대시킴으로써 글쓰기에 유용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으며, 또한 글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전략과 도구를 익힐 수 있다. 또한 자신감을 갖고 글을 쓸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학생들이 능동적인 필자로 변모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둘째 스키마는 학생들이 당면한 읽기와 쓰기 상황에서 요구되는 이상적인 ‘지식구조’를 제공할 수 있다. 학생들은 아직까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존 스키마를 활용하여 글의 정보를 해석 및 통합하는 데 미숙하므로, 읽기와 쓰기의 준비과정으로서 배경지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학생들

의 주의를 스키마 활용에 환기시키는 노력이 필요하고, 교사는 이를 위해 필요한 배경지식을 갖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수업과정에서 스키마의 환기를 위한 도입활동에 대해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셋째, 스키마는 학습자가 정보탐색 과정을 통해 정보를 재구성할 수 있는 전략을 익힐 수 있게 해준다. 그러므로 자료의 구성이나 실제의 지도에서는 단어나 문장 단위 수준이 아닌 글의 전체내용을 일관성있게 다룰 수 있도록 높은 수준의 개념이나 인지구조를 발달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스키마 이론은 학습자를 보다 능동적인 위치에 끌어놓음으로써 쓰기가 적극적인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정착된다고 볼 수 있다. 교사의 일방적인 유도나 지시에 의해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각 단계에 알맞은 쓰기 전략을 생각하고 전체적인 과정에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되는 것이다.

다. 문제해결구조와 모듈 토론

논술 텍스트의 전체적인 구조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Hoey'가 제기한 문제-해결 분석 방법인 '질문법'을 들 수 있다. 그는 일방적인 독백 형식으로 된 텍스트가 '배경적 상황은 어떠한가?', '무엇이 문제인가?', '해결방안에 대한 당신의 평가는 어떠한가?'와 같은 가상의 독자에 의해 던져지는 내재적인 질문들에 대한 응답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한다. 즉 '상황-문제-해결-평가'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실제 학습자들은 이러한 문제 해결 구조 속에서 논술활동을 하게 되며, 스스로의 내부적 활동을 통해 실제 논술문 작성의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

더불어 외부적으로 교사와 상호 학생간의 의사소통을 통한 토론활동이나 상호침삭활동은 위의 문제해결 구조를 발전적인 방향으로 확장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자신만의 문제해결에서 벗어나 다양한 생각들을 접하게 되고,

그 안에서 나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읽고 여러 해결방법 상호작용을 통하여 선택·결정하게 됨으로써 정반합의 최상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게 되는 것이다. 교사와 학생 상호간에 함께 문제를 확인하여 그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문제에 대해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의사소통과정을 통하여 확장된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고 발전된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다.

실제 논술활동에서 상호 학생간의 의사소통과정은 서로의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의미와 더불어 각 각의 활동을 서로 모방하고 습득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의미도 매우 중요하다. 학습자들이 같은 학습장면에서 같은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서로 의견을 주고 받음으로써, 학생들 서로 간에 어떤 단계를 거치고, 어떤 방법을 통해 논술활동을 펼쳐 가는 지를 보고 들음으로써 몸소 체득하게 된다. 이러한 활동은 교사의 시범활동보다 직접적인 학습의 효과를 가질 수 있게 한다.

라. 과정중심의 쓰기 교육⁴⁾

과정중심 이전의 쓰기교육은 결과중심 쓰기교육이다. 결과중심 쓰기는 객관주의 인식론을 바탕으로 한 형식적 관점의 접근인 것에 반하여 과정중심 쓰기교육은 구성주의 인식론을 바탕으로 의미구성 과정을 중요시하는 접근방식이다. 한 편의 글을 완성하기까지의 과정을 강조하며, 쓰기를 일련의 문제해결 행위로 간주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중심 쓰기의 관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쓰기를 의미구성 행위로 파악한다. 쓰기활동은 기본적으로 지식을 주관적이고 유동적이 것으로 파악하면서, 쓰기의 과정을 탐구과정과 구성과정으로 인식하여 학습자들의 역동적인 의미구성 행위를 강조한다.

4) 이지윤(2007)의 'Ⅱ.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재정리하였다.

둘째, 쓰기를 문제해결 행위로 보면서 고도로 복잡한 사고작용이 개입됨을 강조한다. 쓰기를 발견적 특성을 지닌 문제해결과정으로 봄으로써 문제해결능력이나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행위라고 보는 것이다.

셋째, 쓰기가 의사소통 행위임을 강조한다. 글을 쓰는 목적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것으로, 서술자는 글을 쓰면서 계속 독자를 고려하게 되고 독자는 상당 부분 서술자의 쓰기 행위에 영향을 주게 된다. 뿐만 아니라 쓰기 활동은 다른 사람과의 협의과정을 거쳐 나온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다.

넷째, 쓰기의 주요특성인 회귀성을 강조한다. 이는 쓰기활동이 자기조정의 과정임을 강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글을 쓰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자신의 인지과정을 조정하고 그 결과로 전체 활동을 점검하고 통제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하는 특성이 있다.

다섯째, 쓰기활동은 하나의 '협동'임을 강조한다. 글을 쓰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책을 읽어 기초지식을 바탕으로 주어진 텍스트를 파악하여 그에 적절한 내용에 대해 여러 사람과의 의사소통 과정을 통하여 완성된 결과를 만들어내는 활동이다. 이러한 활동의 글을 쓰기 전이나, 글을 쓴 후, 그리고 글을 쓰는 중간과정에서도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여섯째, 쓰기의 과정에는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쓰기에 관한 지식, 기능, 전략 등의 필자 요인과 더불어 독자, 목적 등과 같은 과제요인은 쓰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동시에 작용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중심의 작문이론이 쓰기학습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교사의 역할이 증대되었다는 점이다. 교사는 학습자의 작문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습자가 서술자로서의 책임을 인식하고 도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안내하여야 하며 촉진자로 역할해야 한다. 다음으로 학습자

각자의 개인차가 보다 존중된다는 점이다. 과정중심 이론에서는 개인마다 의미구성의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차를 고려하여 수업을 해야 하며, 이를 통해 학습자 각자가 주어진 문제를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해 하도록 적극적이며 능동적으로 쓰기에 참여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완성된 글 자체도 중요하지만 글을 쓰는 과정 전체를 강조한다는 점이다. 이는 결국 완성된 글 자체만 평가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미완성 글이나 과정 전체를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자 또한 교사 뿐만 아니라 학습자 자신이나 학습동료도 평가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마. 장르 중심의 쓰기교육

장르중심 작문이론에서는 장르의 유형, 사회적 기능, 형식과 내용을 가르치는 것을 쓰기교육의 목표로 삼는다. 이를 통해 다양한 상황 맥락 내에서 전개되는 텍스트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장르란 반복적인 사회적 상황에 대한 수사적 반응이며, 사회변화의 추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가변적인 존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장르구조는 사회적 상호작용 유형이 반영된 구조이며, 장르 지식은 상황 인지의 특성을 가지게 된다. 전통적인 텍스트가 형식적인 요소를 강조했던 것과는 달리, 장르중심 작문이론에서 텍스트는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형성되는 텍스트를 강조한다.

쓰기교육에서 이러한 장르에 중점을 두는 이유는 쓰기를 포함한 언어의 상호작용이 일정한 관습을 형성하고 있고, 이것이 의사소통의 효율성과 문화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장르를 무시하면 그 공동체의 문화·사회적인 특징에 적합한 말을 할 수 없다. 글 역시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장르중심의 쓰기교육은 쓰기의 내용과 방법을 일정부분 정하여 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즉 쓰기교육에 관한 형식과 내용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과정중심 작문교육이 교육방법적 측면에서는 많은 기여를 하였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유효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학생들은 이러한 장르적 지식을 익히고 그것을 활용하여 글을 씀으로써 그 장르를 매개로 하는 공동체와 효율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논술교육이 독서교육과 더불어 통합교과적 특성을 갖게 된 중요한 배경이라 볼 수 있다.

바. 대화주의 쓰기교육

대화주의 쓰기이론은 Bakhtin이 구조주의 언어학과 인지주의를 비판하면서 나타났다. 그는 구조주의 언어학을 ‘추상적 객관주의’로, 인지주의를 ‘개인적 주관주의’라고 비판하면서 의미는 대화자 상호간의 대화를 통해서만이 존재가 가능하며 의미는 이러한 언어사용의 상황 속에 존재한다고 보았다. 즉 의미는 서술자가 독자의 기대와 요구에 맞게 자신의 목표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생기며, 어디까지나 서술자와 독자의 상호관련성 속에서만이 그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는 것이다. 대화주의에서는 쓰기도 서술자와 독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언어활동으로서 의미를 구성하는 활동으로 보고, 텍스트를 서술자와 독자의 목적과 의도를 중재시키는 매개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대화주의에서의 쓰기활동은 담화 구성원간의 대화를 통해 상호작용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구성하는 사회적인 특성을 갖는 활동이다. 이러한 사회적 대화경험은 ‘내적인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인지와 의미형성에 반영되고 글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결국 대화주의 쓰기이론은 실제 쓰기학습 장면에서 교사와 학습자, 학습자 상호간의 담화구성원이 다양하고 풍부한 대화를 통해 논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학습상황에서의 토론활동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논술쓰기 이론에 대해 살펴보았다. 앞의 제시한 여러 쓰기와 관련된 이론들은 쓰기의 결과물 자체 또는 모범적 텍스트의 모방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서술자가 텍스트를 구성해가는 과정을 중시하면서, 언어 공동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서술자와 독자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쓰기이론의 경향으로 현재의 논술교육은 언어 공동체 내에서 교사나 동료와의 의사소통을 통하여, 현 상황이 반영된 장르를 과정중심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점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토론활동을 통한 구성원들 간의 다양한 대화활동은 논술활동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를 본 연구의 논술교육에 적용해보고자 하였다.

3. 통합적 논술교육

이 절에서는 통합적 논술프로그램을 적용하기에 앞서 통합적 논술교육의 개념과 여러 이론들을 살펴보고, 그 이론들이 논술교육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적절히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하고자 한다. 이는 적합한 통합적 논술교육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본 연구의 프로그램 구안과 적용에도 시사점을 주어 이론적 근거가 될 것이다.

가. 언어기능의 통합⁵⁾

본 연구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통합적 논술교육은 먼저 ‘언어기능의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이는 ‘통합적 언어교육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다. 통합 언어는 원어인 ‘Whole Language’ 또는 ‘총체 언어’, ‘전체 언어’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전체 언어’라는 용어는 주로 영문학에서

5) 이지윤(2007)의 II. 이론적 배경 중의 내용을 재정리하였다.

사용되고 있고, ‘총체 언어’, ‘통합 언어’는 국어교육에서 사용되고 있다. K.Gooman은 언어, 학습, 사람에 대한 관점을 묶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정의하였으며, D.Waston은 학생들이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읽기·쓰기·말하기·듣기를 함께 학습해야 한다는 교수책략이라고 하였다. Weaver는 언어와 아동의 경험에 기초해 읽기와 쓰기에 접근하는 것을 강조한다고 하였고, 이재승(1992)는 언어와 학습, 학습자에 대한 하나의 관점과 일련의 신념을 바탕으로, 실제적이고 의미있는 상황에서 구어와 문어가 통합되어 이루어지는 자연적인 언어교육을 의미한다고 정리하였다.

언어와 학습, 교사와 학습자에 관한 포괄적 관점 또는 철학인 통합적 언어교육은 다음과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언어는 나누어질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실제적인 사용에 있어서는 항상 동시에 제시되고, 이들이 상호작용하여 의미(전체)를 이룬다고 보았다. 또한 언어는 사회성이 있어 언어가 사용되는 집단 안에서 공유되며, 상호작용을 통해 언어가 풍부해지고 강화된다. 그리고 언어는 사물과 자신의 생각,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상징을 조직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학습에 관하여는 언어학습은 언어자체를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의 상호소통과정을 통해 학습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언어학습은 학습자가 의사소통의 목적에 부합되는 상황에서, 언어를 통해, 언어에 관해 배우는 과정에서 전체의 의미를 가지고 부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학습자에 관하여는 학습자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학습자 그대로를 인정하고, 그들의 자연적 발달을 도우는 데 초점이 있다. 이 이론에서는 학습자가 언어를 가지고 있으며 스스로 언어를 학습할만한 능력이 있다는 생각이 전제된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들이 이미 지니고 있는 학습능력과 언어를 넓혀가도록 도움을 주는 조력자이다. 그러므로 교사는 학습자의 협조자 및 보조자로서 함께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자의 경험과 배경에 기초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여 학

습자의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데 주력해야 한다.

통합적 언어교육은 통합 언어의 이론적 근거 위에서 효과적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통합언어가 내포하고 있는 관점이나 신념은 언어 교육에 대한 관점에서 출발하였으며, 통합적 언어교육은 언어교육 그 자체의 목적인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을 위한 언어기능의 통합을 위해 의미있고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국어교육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첫째, 말하기·듣기·읽기·쓰기의 언어기능들은 통합적으로 지도될 필요가 있다. 둘째, 국어교과 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 및 교과 외의 학교교육과정에서도 언어기능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셋째, 실제적이고 의미있는 활동을 통해 언어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국어교육의 초점을 언어 자체 뿐만 아니라 언어의 의미에 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통합적 언어교육은 학습자 중심의 국어교육이 이루어지는 데 이바지할 것이며, 국어교육을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통합적 언어교육이 논술교육에 시사하는 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언어교육의 최종 목표 중 하나인 의미있는 의사소통을 위해서 쓰기교육도 언어기능의 통합적 형태를 활용하여야 한다. 논술자가 담화 공동체 안에서 ‘왜 논술을 하는가’를 인식함으로써 쓰기에 대한 막막함을 해소할 수 있으며, 대화와 협의를 통하여 진정한 표현으로서의 의사소통이 나타날 수 있다. 읽기를 통하여 스스로 논의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게 되고, 실제 서술시에 주의해야 될 표현방법을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된다. 또한 말하기·듣기의 직접적 활동을 통하여 예상독자에게 전달할 내용을 수정·보완할 수 있게 된다.

효과적인 논술교육을 위해서는 말하기·듣기·읽기가 통합된 쓰기교육이 구안되어야 한다. 특히 논술은 다른 어떤 쓰기영역보다도 통합적 언어교육

의 접근이 필요하다. 논술은 주어진 논제에 대해 다양한 스키마를 바탕으로 독자로 하여금 자신의 의견에 대해 논리적이고 종합적으로 설득하는 글이다. 언어기능적 통합을 통한 논술교육은 담화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견해를 상대에게 정확히, 영향력있게 전달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영향을 나타낼 것이다.

나. 교육활동 영역의 통합

언어는 그 자체로서 연구와 학습의 대상이 된다. 반면에 인간의 사고과정을 위한 기본도구이며 체계이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어우러져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도구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언어는 학습자가 학습하는 모든 과정에서 필수불가결하게 사용되며, 학습하는 대상이 된다. 따라서 언어는 학습자의 모든 교육활동을 통하여 통합적으로 교육되어야 한다. Newman은 통합적 언어는 교육과정에 대한 신념을 말해주는 것으로, 단지 언어교육과정이 아닌 교실상황에서 지속되는 모든 것에 관한 것이라고 하였다. Anderson은 통합적 언어를 '의미있는 맥락적 상황에서 연결되어진 담화속에서 쓰여진 언어다.'라고 했으며, Bird는 통합적 언어는 사고의 방식이며 교실 내에게 아동과 함께 배우고 생활하는 방식이라 하였다.

현재 중학교 교육과정은 모든 활동이 학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육의 전체목표를 위해 각 교육활동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적용되고 있다. 교육활동 안에는 교과와 관련된 교육과정 뿐만 아니라 학교생활 전반의 여러 활동이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여러 교육활동이 학습자에게 종합적으로 학습되어 전체 교육목표에 도달하고자 한다. 각 교육활동이 구조적으로 적용되도록 모든 교사와 학교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으나, 이를 종합하고 적용하는 것은 학습자에게 전적으로 일임되어 있는 것이 현 교육상황의 큰 문제 중 하나이다.

논리적 사고능력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목표를 위해 이루어지는 논술교육도 이러한 측면에서 교과적 특성을 떠나 교육활동 전반을 통하여 접근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학교의 모든 교육활동이 학습과정이라는 측면에서 협동학습에 의해 접근할 수 있다. 교과와 교과 간의 협동수업은 여러 연구들을 통하여 프로그램이 구안되고 적용되고 있다. 이를 좀 더 확장시켜 학급활동 및 교과 외 학교 활동에 적용하는 것은 결국 모든 학교활동을 하나의 교육목표를 위한 전체 교육과정으로 보는 측면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에 협동수업(Team Teaching)의 이론적 근거⁶⁾를 통하여 본 연구의 이론적 기초를 다지고자 한다.

협동수업이란 1960년대 후반, 둘 또는 그 이상의 교사가 문학과 역사와 같은 과목을 하나의 과정으로 통합하여 학생들에게 보다 넓은 안목을 주기 위해서 교사가 팀(Team)이 되어 협동으로 가르치는 프로그램으로 시작되었다. Cunningham(1960)에서는 협동수업의 유형을 한 교사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주도형 유형, 여러 교사가 모든 과정에서 긴밀히 협조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연합유형, 경험이 많은 교사가 신참교사를 훈련시킬 목적으로 함께하는 주임/신참 유형, 학습자를 나누어 교사 자신이 맡은 학생만을 가르치는 공동교수 유형으로 나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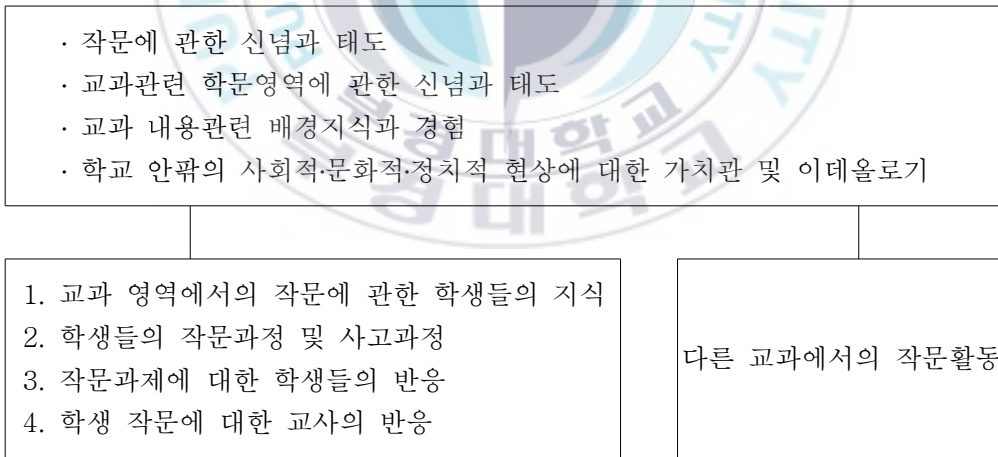
이러한 협동수업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교사들을 전문화할 수 있고, 교사들은 서로에게서 얻는 점이 많으며, 다양하고 창의적인 수업자료를 개발하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협동수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팀 구성원간의 협동과 조화로운 역할분담을 통한 의사소통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며, 교재를 창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협동수업에 대해 학습자들에게 적절한 동

6) 이남주(2000)의 'Ⅲ. 협동수업을 활용한 논술지도'를 참고하여 재정리하였다.

기가 부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들은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협동수업에 대한 교수법의 기술을 익혀야 한다. 또한 교사 간, 교사-학습자 간에 필요한 대인기술을 갖추어야 한다.

협동수업의 여러 이론적 특징은 범교과적 작문교육(writing across curriculum)에도 적용되게 되었다. 범교과적 작문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작문활동과 교과학습 사이의 연관성에 관한 이론적 연구의 결과이다. 이들 이론가들은 작문행위를 아이디어를 발견하고 조직하고 표현하는 심리적 활동임과 동시에, 지식을 구조화하는 인지작용이라고 주장한다. 작문의 교수-학습 목적이 학생들에게 일련의 체계화된 지식을 가르침과 아울러, 해당 학문분야의 전문가들이 주어진 문제에 대하여 사고하는 과정과 유사하게 사고할 수 있도록 돕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매우 적합한 학습양식인 것이다. 범교과적 작문이 지닌 특성은 <표 VI-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표 III-1 > 범교과적 작문의 특성



<표 VI-1>은 여러 교과 내에서의 작문 학습에 관한 기본가정과 절차를 보여주고 있다. 특정교과와 연관된 작문의 절차와 내용에 관한 학생들의 지식은 그 교과에서 제시된 과제에 대하여 실제 텍스트를 만들어내고, 그에 대해 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점진적이고 체계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들은 주어진 주제와 관련하여 사회적·문화적·정치적 가치에 대한 해석을 내리게 되는데, 이는 학생들의 사고와 행동양식에 영향을 주며 가치관이나 신념도 변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남주(2000)에서는 이러한 지식이 수사론에서 강조하는, 예상독자를 결정하고 분석하고 변화시키는 방법에 관한 지식과는 다르다고 언급하면서, 해당교과의 지적 공동체에 속하는 예상독자는 해당 학문 분야의 작문에 있어서 사고양식·조직방식·문체 등의 측면에서 표준적인 행동을 창조하고 공유하는 사람들만의 지식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자는 이러한 여러 해당교과의 쓰기활동이 종합적이고 협동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쓰기교육의 방향이라고 본다. 결국 학생들은 여러 교과와 관련된 학문체계를 학습하면서 그 대상에 대한 개념적 지식과 그 내용의 논증 및 탐구의 방법에 대한 절차적 지식을 획득하게 되고, 이러한 학습은 개념적 지식의 기억을 위한 학습이 아니라 절차적 지식과 문제해결력 및 창의적 사고력의 신장을 위한 학습에 필수적인 것이다.

따라서 논술교육에서는 확장된 협동수업으로서의 통합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과정 운영의 측면에서 각 교과가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형태에서 벗어나, 언어기능의 통합교육과 더불어 교사 간·각 교육활동 간의 협동적 통합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이 각 학습내용의 통합을 이루고 종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사고과정과 학습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통합적 논술교육을 지향하는 한 방향으로서 언어기능을 통합한 과정중심적 프로그램을 구안하고 적용하였다. 또한 논술교육에 학교교육활동의 여러 영역을 통합하는 의미로 먼저 학교의 기본 구조인 학급활동을 통해 각 교과의 활동을 지원하고 아우를 수 있는 논술활동의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IV. 중학교 논술교육의 현황

1. 교사의 설문

학교 현장의 교사들에게 논술 교육의 실태와 논술교육에 대한 견해를 파악하고자 중학교 교사 81명을 대상으로 설문지⁷⁾를 통해 조사하였다.

- 설문대상 : 부산지역 중학교 교사 81명

설문대상은 근무 환경상 4년에서 5년에 한 번씩 다른 학교로 순회하는 공립학교 중등교원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여러 학교를 순회하는 경우 여러 학교에서 근무하게 되므로 교원들의 의견을 교류 공유할 수 있어서 대체적으로 확장된 사고와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설문의 표본대상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지역은 본 연구대상을 지도하고 있는 학교와 그 외 한 학교의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과목이나 연령은 두 학교에 속한 대부분의 교직원이 교육과정상 필요한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느 한 영역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구성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설문의 대상은 검증된 자질을 갖추고 있는 교원으로서 부산지역 교원의 견해를 표본적으로 분석하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부산지역은 전체 16개 시도교육청에서 일반적인 지역교육지이므로 우리나라 전체 교원의 견해를 파악하는 데도 어느 정도 표본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가정 하에 본 설문의 의의를 두었다.

- 설문기간 : 2008. 3. 2 - 2008. 4. 15

설문기간은 본 연구가 시작되는 3월 2일부터 설문지를 배포하여 4월 15일까지 수거 분석하였다. 현재 부산지역 학교는 3월에 신학년이 시작되는 학사일정을 운영하고 있어 신학년 신학기 업무로 교원들의 업무가 폭주하

7) 부록 1의 1)에 첨부하였다.

는 시기였으며, 신학년 학급 담임을 배정받은 경우는 새 학급의 학생들을 확인하고 파악하여야 하므로 설문을 진행하는 것이 다소 무리가 되었다. 그러나 다행히 설문지를 배포한 두 학교 교원 모두 적극적으로 설문에 참여하여 88매를 배포한 후 7매를 제외한 81매가 수거되어 배포수(88매) 대비 수거수(81매)의 비율이 92%로 매우 높았다.

< 표 VI-1 > 교사설문 응답자의 대상 파악

(N=81)

구분항목	구성비율								
남/여 교사	남		여		담임여부	담임		비담임	
	15명 18.5%	66명 81.5%	50명 61.7%	31명 38.3%					
근무년수	<5년		5년≤,<10년		10년≤,<15년		15년≤,<20년		>20년
	21	15	6	19	20				
담당교과목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도덕	체육	미술	음악
	12	10	10	10	8	5	5	3	2
	기술/가정	한문	특수	보건	중국어	국사	컴퓨터	사서	
	6	2	2	2	1	1	1	1	

- 설문내용8)

- 질문 1 : 중학교 논술 교육의 필요성
- 질문 1-1 : 중학교 논술교육의 필요성의 원인
- 질문 2 : 중학교 논술 교육의 현황
- 질문 3 : 중학교 논술 교육의 효용성
- 질문 4 : 논술교육의 문제 요인 분석

8) 부록 1의 1)사전 설문지(교사용)에 첨부

질문 5 : 학교 눈술교육의 담당자

질문 6 : 눈술교육의 참여여부

질문 7 : 눈술에 대한 개인능력 평가

질문 8 : 눈술의 방법 인지 여부

질문 9 : 눈술교육의 방법 인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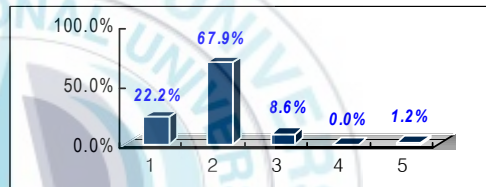
질문 10 : 중학생 눈술 교육의 효과적 방법

질문 11 : 중학교 학급활동을 통한 눈술교육의 효용성

【 질문 1 】 : 중학교 눈술 교육의 필요성

1. 중학교에서 눈술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필요하다 (18 명)
- ② 필요한 편이다. (55 명)
- ③ 보통이다. (7 명)
- ④ 별로 필요하지 않다. (0 명)
- ⑤ 필요하지 않다. (1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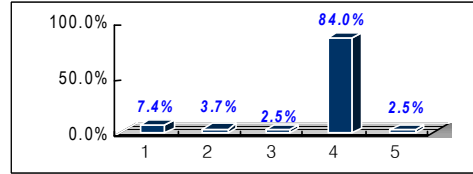


이 문항은 중학교 눈술교육의 필요성을 묻는 문항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의 대부분의 교사들이 눈술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99%의 응답자가 보통 이상으로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눈술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보통을 제외하여도 90%의 응답자가 ①, ②를 선택하여 눈술교육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현재 중학교 교육과정은 적어도 10개 이상의 교과목과 그 이외 여러 다른 영역의 활동으로 빠듯하게 운영되고 있어 새로운 다른 교육영역에 대한 부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교사가 눈술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현 상황에서의 눈술교육이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눈술교육에 대한 미래전망에 있어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 볼 수 있다.

【 질문 1-1 】 중학교 논술교육의 필요성의 원인

1-1. 필요하다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학업에 도움을 준다. (6 명)
- ② 사회생활에 도움을 준다. (3 명)
- ③ 진학에 도움을 준다. (2 명)
- ④ 종합사고력에 도움을 준다. (68 명)
- ⑤ 기타() (2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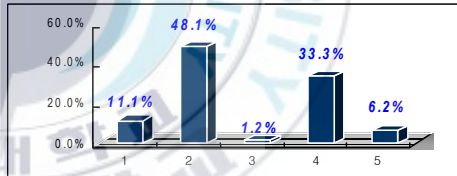


질문 1의 하위 문항으로서 논술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응답결과를 살펴본 결과 ④번 문항의 응답자가 68명으로 84%의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④번 항목은 본 연구자가 논술교육의 가장 큰 의의로 언급하였던 ‘종합사고력 신장’의 항목이며, 대부분의 교사들도 논술교육이 종합적인 사고력의 신장을 가장 큰 필요성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질문 2 】 중학교 논술 교육의 현황

2. 현재 중학교에서 논술교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① 개별적 교육과정으로 운영된다. (9 명)
- ② 교과(국어, 사회) 관련하여 운영된다. (39 명)
- ③ 학급활동을 통하여 운영된다. (1 명)
- ④ 방과후 활동을 통하여 운영된다. (27 명)
- ⑤ 모든 교육과정을 통해 통합운영된다. (5 명)



이 문항은 현재 중학교에서 논술교육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의 현황을 파악하는 문항이다. 문항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48.1%(39명)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항목이 ‘교과와 관련 운영’이며, 그 다음 순위로 33.3%(27명)의 ‘방과후 활동’, 11.1%(9명)의 ‘개별적 교육과정 운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결과로 보아 논술교육의 통합적 실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인다.

논술교육은 국어나 사회와 같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과에서 임의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교육정책의 일환으로 점점 활성화되고 있는 방과 후 활동을 통하여 운영되고 있다고 파악된다. 방과 후 활동은 교육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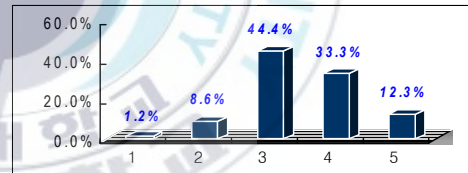
에 포함된 교과 뿐만 아니라 학교 밖의 사교육 시장에서 수요가 많은 과목들이 개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논술교육도 현 교육상황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영역으로 국어과의 사교육분야로 많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방과 후 활동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학급활동을 통한 논술교육은 1명의 응답자만 답하고 있다. 중학교 교육현장에서 담임교사가 행정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학급의 학생들을 관리하고 상담하는 역할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예상해 볼 수 있었던 결과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중학교에서 담임교사도 학급의 교과 교사로서 학생과 학습장면에서 만나게 되며, 또한 다른 교과교사와 달리 학생의 많은 부분을 지속적이고 개인적으로 지도한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학급에서의 논술교육은 그만큼 의미가 있다.

【 질문 3 】 : 중학교 논술 교육의 효용성

3. 현재 학교에서 논술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1 명)
- ②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7 명)
- ③ 보통이라고 생각한다. (36 명)
- ④ 대체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 (27 명)
- ⑤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 (10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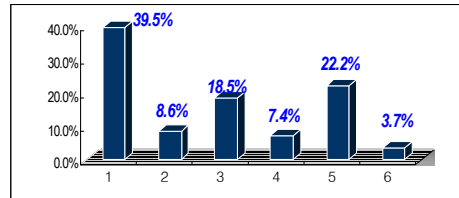


이 문항은 현재 중학교에서 논술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문항이다. 이 문항은 표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90%(73명)의 응답자가 보통 이하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논술교육의 필요성과는 완전히 반대의 응답현황을 보이고 있다. 90%중에서도 절반 이상인 45.6%(37명)이 부정적 견해를 보이고 있었으며, 44.4%(33명)이 보통이라고 응답하였다. 많은 교사가 현재 논술교육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질문 4 】 : 논술교육의 문제 요인 분석

4.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 | |
|---------------------|--------|
| ① 운영시간 부족 | (32 명) |
| ② 교사들의 연수기회 부족 | (7 명) |
| ③ 교육자료 및 교재 부족 | (15 명) |
| ④ 평가에 대한 문제 | (6 명) |
| ⑤ 학생과 교사의 동기 및 흥미부족 | (18 명) |
| ⑥ 기타 | (3 명) |



이 문항은 3번 질문을 통하여 논술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 중에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문항이다. 그러나 3번 문항에서 논술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도 모두 4번 문항에 대해 81명(100%)의 응답자가 의견을 나타내었다. 가장 큰 이유로 ‘운영시간 부족’이라는 항목에 39.5%(32명)이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학생과 교사의 동기 및 흥미 부족’과 ‘교육자료 및 교재 부족’이라는 항목이 뒤를 이었다. 이러한 응답결과로 보아 역시 중학교의 학교운영이 시간적으로 매우 빠듯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논술교육을 하기 위한 물리적 시간확보의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어떤 학습내용도 학습주체인 교사와 학생의 동기유발이 되지 않으면 효과를 얻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논술교육의 동기와 흥미유발은 반드시 논술교육 실시 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과제이다. 이는 앞에서 언급하였던 논술교육의 필요성을 교사와 학생이 적절히 인식하고 이에 대해 깊이있게 다뤄지기만 한다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원인이다. 따라서 논술교육에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학습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와 필요성 인지과정의 단계가 절실히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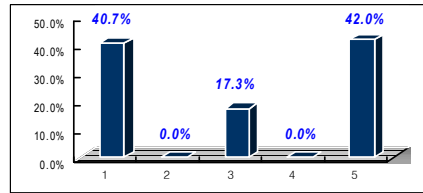
운영시간이 확보되고 학생과 교사가 논술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동기와 흥미가 유발되어도 실제 학습할 수 있는 교육자료와 교재가 부족하다는 점도 논술교육이 실제 학습장면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주된 원인이 되

므로, 시급히 자료와 교재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도 알 수 있었다.

【 질문 5 】 : 학교 논술교육의 담당자

5. 학교에서 논술교육은 누가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관련교과 교사 (33 명)
- ② 담임교사 (0 명)
- ③ 방과 후 담당교사 (14 명)
- ④ 개인적 개별지도 (0 명)
- ⑤ 모든 교사의 통합적 지도 (34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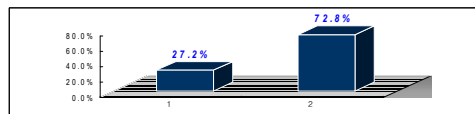


이 문항은 학교현장에서 논술교육을 누가 담당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 문항이다. ‘모든 교사의 통합적 지도’(42%, 34명)와 ‘관련교과 교사 지도’(40.7%, 33명)가 거의 비슷하게 가장 많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2번 문항에서 논술교육이 교과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운영되고 있고, 통합운영은 6.2%에 그친 것과 연관지어 분석해 볼 때, 실제로는 통합운영이 되고 있지 않지만 논술교육의 통합운영 필요성도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중학교 교육과정은 각 교과의 통합운영을 통해 대부분의 교육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각 교과 중에서도 논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과에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도 많았다.

【 질문 6 】 : 논술교육의 참여여부

6. 논술을 교육에 직접 적용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 ① 그렇다. (22 명)
- ② 아니다. (59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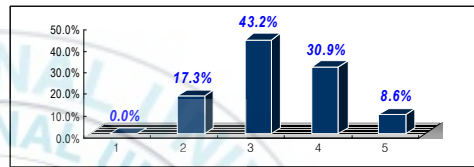
이 문항은 논술에 대한 필요성이나 실제 교육현황과 비교하여 본인이 직접 논술교육을 적용해 본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논술교육이 교과시간을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각 교과를 통해서 통합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것에 반해서 실제로 논술교육을 적용해 본 경험의 비율은 27.2%(22명)로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문항은 지속적으로 논술교육을 한 경우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나 단회적으로 논술교육을 실시한 경우까지 모두 포함하는 질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수 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교사가 논술교육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비율이 70% 이상이 된다는 점은 현 논술교육의 실제 적용이 매우 저조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결과라 볼 수 있다.

【 질문 7 】 : 논술에 대한 개인능력 평가

7. 선생님께서는 논술을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아주 잘한다고 생각한다. (0 명)
- ② 비교적 잘한다고 생각한다. (14 명)
- ③ 보통이라고 생각한다. (35 명)
- ④ 대체로 못한다고 생각한다. (25 명)
- ⑤ 아주 못한다고 생각한다. (7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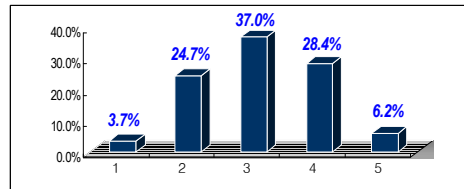


이번 문항은 교사 스스로 논술을 잘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자기평가 문항이다. 보통이상으로 응답한 비율이 60.5%(49명)로 과반수를 넘었으나, 미흡하다고 평가한 경우도 39.5%(32명)으로 적지 않은 비율을 보였다. 학습을 주도하고 교육하는 주체자로서 논술에 대한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스스로 인지하게 되는 경우는 필수불가결하게 교육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체적으로 적극적인 교육의지를 가지기 어렵다. 이러한 점이 앞 6번 문항에서 논술교육의 저조한 적용경험 응답비율로 나타난 것이라 볼 수 있다.

【 질문 8 】 : 논술의 방법 인지 여부

8. 선생님께서는 논술의 방법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잘 알고 있다. (3 명)
- ② 비교적 알고 있다. (20 명)
- ③ 보통이다. (30 명)
- ④ 대체로 모른다. (23 명)
- ⑤ 거의 모른다. (5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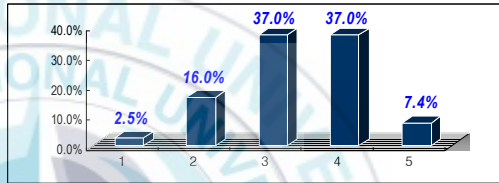
7번 문항에서 논술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보다는 다소 많은 응답자

인 65.4%(53명)가 논술의 방법은 인지하고 있다고 ‘보통’ 이상의 항목에 응답하였다. 논술은 학문을 학습하여 사고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기본적인 방법이므로 학문을 연구·전달하는 교사들은 논술의 방법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34.6%(28명)은 논술의 방법을 모른다는 응답을 보여 의외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교사 자체의 논술능력 향상도 요구된다고 생각되었다.

【 질문 9 】 : 논술교육의 방법 인지 여부

9. 선생님께서는 논술교육의 방법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잘 알고 있다. (2 명)
- ② 비교적 알고 있다. (13 명)
- ③ 보통이다. (30 명)
- ④ 대체로 모른다. (30 명)
- ⑤ 거의 모른다. (6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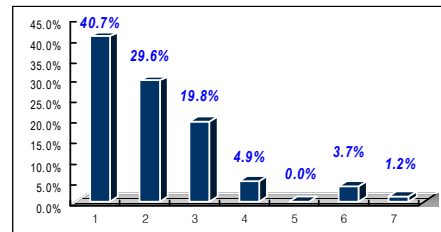


스스로 논술을 잘 하고, 논술의 방법을 안다고 하여도 논술교육의 방법을 모르면 실제 학교현장에서 논술교육을 적용하기 어렵다. 이 문항에서는 논술교육의 방법을 알고 있는가를 질문하였다. 역시 81.4%(66명)의 많은 응답자가 보통 이하로 논술교육의 방법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 또한 논술교육이 잘 실천되지 않고 있는 원인으로서는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이라 볼 수 있으며 논술교육의 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연수 및 교사의 능력개발이 요구되는 항목이다.

【 질문 10 】 : 중학생 논술 교육의 효과적 방법

10. 중학생들이 논술을 잘 하기 위한 좋은 교육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독서를 많이 하게 한다. (33 명)
- ② 토론을 많이 하게 한다. (24 명)
- ③ 논술을 많이 써보게 본다. (16 명)
- ④ 첨삭지도를 받게 한다. (4 명)
- ⑤ 평가의 방법으로 활용한다. (0 명)
- ⑥ 관련교과시간에 열심히 하게 한다. (3 명)
- ⑦ 기타() (1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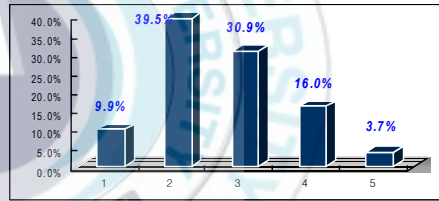


중학생들이 논술을 잘 하기 위한 효과적 방법이 무엇인가의 질문에는 독서, 토론, 논술이 차례대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는 논술교육이 읽기, 말하기, 듣기, 쓰기의 의사소통 4가지 방법의 통합적 경험을 통하여 향상된다고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독서나 토론, 논술은 지속적으로 하여야 학습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과 사회구성원들의 의견교환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화 과정이 일어나는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논술교육의 적용사항으로 추출할 수 있었다. 반면에 실제 논술교육에서 교사들이 가장 힘들게 여기는 첨삭지도의 방법은 논술교육의 효과적 방법으로 앞의 세 항목에 비해서는 낮은 비율(4.9%, 4명)을 보였다.

【 질문 11 】 : 중학교 학급활동을 통한 논술교육의 효용성

11. 중학교에서 학급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자주적으로 논술교육을 한다면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①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 (8 명) |
| ② 비교적 효과적일 것이다. | (22 명) |
| ③ 보통이다. | (25 명) |
| ④ 비교적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 (13 명) |
| ⑤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 (3 명) |



마지막 문항으로서 본 연구에서 실제로 적용하고자 하는 학습활동을 통한 논술교육의 효용성에 대해 교사들의 의견을 묻는 문항이다. 80.3%(65명)의 교사가 ‘보통’ 이상의 긍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설문대상 중 50명이 근무하고 있는 본 연구 실시학교인 G중학교가 현재 학급활동으로서 배정된 교육과정상의 시간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학급활동을 통한 교육 자체가 매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의 응답자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으로써 본 연구의 필요성이 더욱 나타났다.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자 중에는 현재 상황에서 학급활동을 통한 논술교육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따로 제시한 응답자도 있었다.

2. 학생의 설문

현재 중학교 학생들은 눈술 교육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설문지⁹⁾를 통하여 조사하였다.

- 설문대상 : 부산지역 여학생 150명, 남학생 137명(총 287명)
- 설문기간 : 2008. 3. 2 ~ 2008. 3. 15
- 설문내용

질문 1: 눈술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호감정도)

질문 1-1 : 좋아하는 이유

질문 1-2 : 싫어하는 이유

질문 2 : 자신의 눈술능력에 대한 평가

질문 3 : 쓰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질문 3-1 : 중요한 이유

질문 3-2 : 중요하지 않은 이유

질문 4 : 학교에서 눈술교육의 경험 유무

질문 4-1 : 학교 눈술교육의 적용분야

질문 5 : 눈술방법에 대한 인지 여부

질문 6 : 눈술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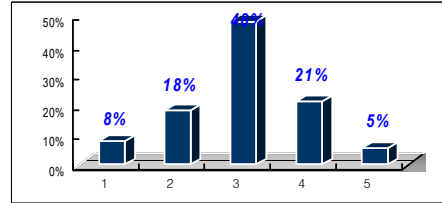
질문 7 : 눈술을 잘하기 위한 방법

일반적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눈술교육 중요성의 인식정도를 파악하고 눈술교육을 왜 어려워하는지 파악하여 효과적인 눈술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과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학급활동의 교육과정을 통하여 눈술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실태를 파악하였다.

9) 부록 1의 2)에 첨부하였다.

【 질문 1 】 : 논술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호감정도)

1. 해결해야 할 주어진 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쓰는 것(논술)을 좋아합니까?
- ① 좋아한다 (22 명)
 - ② 좋아하는 편이다 (52 명)
 - ③ 보통이다. (138 명)
 - ④ 싫어하는 편이다. (60 명)
 - ⑤ 싫어한다. (15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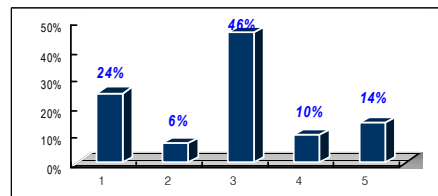


이 문항은 학생들이 논술을 좋아하는지 좋아하지 않는지에 대한 질문의 문항이다. 가장 많은 수의 학생(138명, 48%)이 논술에 대해 특별히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고 보통의 호감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 ‘싫어하는 편이다’의 응답자와 ‘좋아하는 편이다’의 응답자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으나 싫어하는 경향이 다소 많았다. 연구자는 ‘보통이다’를 포함하여 부정적인 견해가 긍정적인 견해에 비해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제 학생들의 설문 결과 논술에 대해 그리 나쁘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다음 질문인 1-1과 1-2는 본 질문 1에서 응답한 내용에 따라 나누어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보통이다’를 응답한 학생은 1-1과 1-2에 모두 응답하기도 하고, 두 문항 모두 응답하지 않기도 하여 모수에는 차이가 있다.

【 질문 1-1 】 : 좋아하는 이유

- 1-1. 질문1에서 좋아한다면 왜 좋아합니까?
- ① 쓰기에 취미가 있다. (23 명)
 - ② 쓰기에 소질이 있다. (6 명)
 - ③ 글쓰는 시간이 재미있다. (43 명)
 - ④ 글쓰기를 통해 칭찬을 듣는다. (9 명)
 - ⑤ 기타() (13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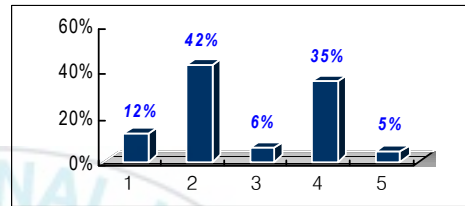
논술을 좋아하는 경향을 가진 학생 중 ‘글쓰는 시간이 재미있다.’와 ‘쓰기

에 취미가 있다.’의 응답이 각각 46%와 24%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반면에 쓰기에 소질이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가장 적어 본인 스스로 논술이나 쓰기 능력에는 자신없어하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 질문 1-2 】 : 싫어하는 이유

1-2. 좋아하지 않는다면 왜 좋아하지 않습니까?

- ① 쓰기는 힘들다. (16 명)
- ② 쓰기에 흥미가 없다. (56 명)
- ③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 (8 명)
- ④ 쓰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47 명)
- ⑤ 기타 () (6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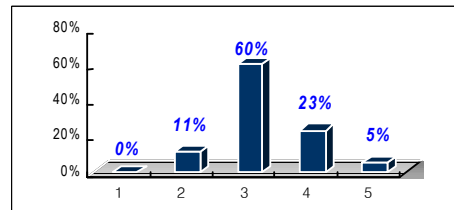


논술을 싫어하는 경향을 가진 학생 중에서는 쓰기 자체에 대한 흥미가 없는 학생(42%)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논술교육시에 학생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적 방법들이 모색되어야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이유로는 논술방법을 모른다(35%)였다. 이러한 결과는 아직 논술교육이 현 연구대상들이 거처온 교육경험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으며 논술방법을 학습함으로써 논술에 흥미를 가질 수 있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도 할 수 있게 하였다.

【 질문 2 】 : 자신의 논술능력에 대한 평가

2. 자신은 논술을 잘한다고 생각합니까?

- ① 아주 잘한다고 생각한다. (0 명)
- ② 비교적 잘한다고 생각한다. (33 명)
- ③ 보통이라고 생각한다. (173 명)
- ④ 대체로 못한다고 생각한다. (67 명)
- ⑤ 아주 못한다고 생각한다. (14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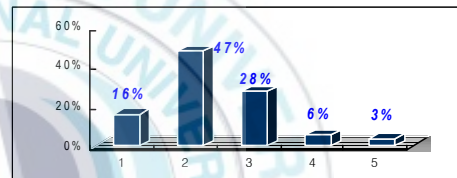
이 문항은 질문 1의 호감도에 비해 실제 자신의 논술능력을 평가해보도

록 하였다. 호감도에 있어서는 좋다와 싫다의 경향이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에 비해, 이 문항에서는 보통을 포함하여 못한다고 생각한다는 경향(89%)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본인 스스로가 못한다고 평가하는 경우는 대부분 실제 능력도 미흡한 반면, 잘한다고 평가하여도 실제 정해진 평가기준으로 평가하였을 때 잘하는 정도가 미흡한 경우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실제로 논술능력은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 역시 논술교육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설문결과라 볼 수 있다.

【 질문 3 】 : 쓰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3.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논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 ① 매우 중요하다 (46 명)
- ② 중요한 편이다. (136 명)
- ③ 보통이다. (79 명)
- ④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16 명)
- ⑤ 중요하지 않다. (10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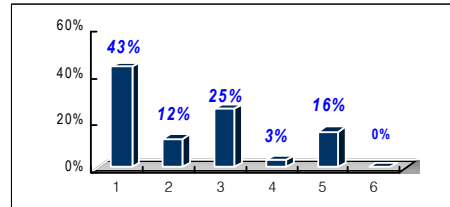
교사설문을 통해서 논술교육의 필요성이 매우 높게 인식된 것과 더불어 학생들의 인식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이상의 응답이 91%로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논술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교육의 직접적 수요자인 학생들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위와 같이 높게 나타난 것은 논술교육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라는 것이 반영된 결과라 볼 수 있다. 또 교육수요자의 필요에 의한 교육의 공급은 그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는 긍정적 배경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따라서 논술교육이 현 상황에서 적절히 구안되어 실시되어야 함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하다.

다음 3-1과 3-2의 모수도 앞 1-1과 1-2와 같이 질문 3의 응답 상황에 따라 선택하여 응답하였으므로 모수에 차이가 있다.

【 질문 3-1 】 : 중요한 이유

3-1. 중요하다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 ① 생각하는 능력이 길러지므로 (91 명)
- ② 글짓기 능력이 길러지므로 (26 명)
- ③ 자기표현을 잘할 수 있으므로 (53 명)
- ④ 다른 학습에도 도움이 되므로 (7 명)
- ⑤ 고교나 대학입시에서 사용되므로 (33 명)
- ⑥ 기타() (0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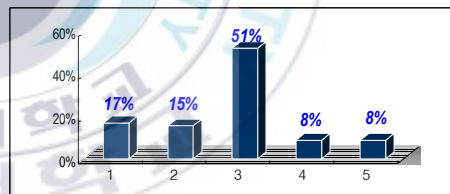


질문 3에서 논술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학생 중 가장 많은 수의 학생 (43%)도 역시 교사의 응답(종합사고력)과 비슷한 문항으로 ‘사고력의 향상’ 문항에 답해주었다. 다음으로는 사회생활의 기본도구로서의 특성인 ‘표현력’에 두 번째(25%)로 응답해주었고, 세 번째는 학생으로서 관심이 많은 ‘진학방법으로의 효용성(16%)’을 선택하였다. 실제 논술교육의 교육적 가치를 적절히 잘 파악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 질문 3-2 】 : 중요하지 않은 이유

3-2. 중요하지 않다면 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 ① 시험에 나오지 않아서 (12 명)
- ② 쓰기 할 기회가 없어서 (11 명)
- ③ 쓰기에 흥미가 없어서 (37 명)
- ④ 평가에 반영되지 않아서 (6 명)
- ⑤ 기타() (6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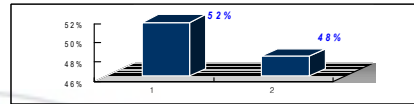
반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여타 다른 이유보다 현저히 많은 비율로 ‘흥미부족(51%)’에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평가에 반영되지 않는 점(25%)’이 두 번째로 나타났다. 역시 학생들은 시험이나 평가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점은 우리나라 입시제도에 모든 교육주체들과 국민들의 초점이 집중되어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된 결과라 보아진다. 다음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기회의 부족’이었다. 우리나라 학교현장에서 아직 한 학급당 학생수가 40명 정도로 실제로 각 개인의 의견을 교환하거나 토의할

수 있는 학습환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각 교과 교사는 적어도 3개 학급 이상의 교과시간을 담당하고 있어 각 개인의 쓰기활동을 통한 의견교환 및 지속적인 개별적 교수학습환경은 실현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결과이다.

【 질문 4 】 : 학교에서 논술교육의 경험 유무

4. 학교에서 논술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148 명)
- ② 없다. (138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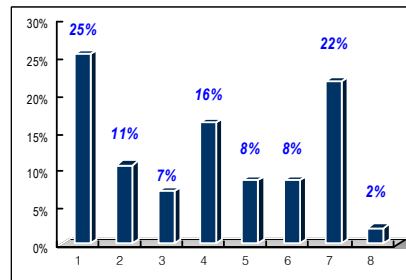
교사의 경우 73% 정도가 ‘논술을 적용한 경험이 없다.’고 답한 반면, 각 학생들은 과반수 이상이 논술을 접해보았다고 답하였다. 교사는 자신이 담당한 교과과목의 수업만을 참여하는 반면, 각 학생들은 각 교사가 담당교

과에 따라 팀티칭의 형식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때문에 많은 비율의 학생이 논술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학생들은 평가기준으로 사용되는 논술을 방과 후 교육이나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접하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 질문 4-1 】 : 학교 논술교육의 적용분야

4-1. 학교에서 논술을 해본 적이 있다면 학교에서 논술교육은 어떻게 됩니까?

- ① 국어시간 진도에 맞춰 공부한다. (36 명)
- ② 논술시간을 따로 정하여 한다. (15 명)
(방과후 수업 포함)
- ③ 각 교과시간에 통합적으로 공부한다. (10 명)
- ④ 학습시간을 활용한다. (23 명)
- ⑤ 숙제나 가정학습으로 대체한다. (12 명)
- ⑥ 특별활동시간을 활용한다. (12 명)
- ⑦ 특별히 하지 않는다. (31 명)
- ⑧ 기타 () (3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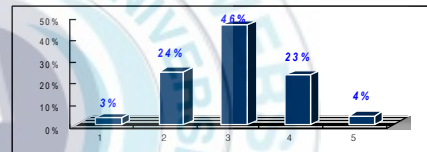
이 문항도 질문 4의 하위 문항이므로 모수에 차이가 있다. 학교현장에서

논술을 경험하는 적용분야로 역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국어교과시간(25%)’이었다. 그 다음으로 ‘특별한 적용분야가 없다(22%)’는 응답이 두 번째로 나타났다. 논술교육이 어떤 특정한 분야를 한정지어 적용되지 않고, 여러 교육과정에 스며들어 있다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진다. 다음 응답으로는 ‘학급시간의 활용(16%)’이었다. 중등교육과정에서는 학급시간의 비율이 많이 배정되어 있지 않고, 각 교사의 논술교육 경험도 낮은 상황에서 의외의 결과로 보여진다. 학급활동을 통한 논술교육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요구되는 결과이다.

【 질문 5 】 : 논술방법에 대한 인지 여부

5. 논술의 방법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 ① 잘 알고 있다. (9 명)
- ② 비교적 알고 있다. (70 명)
- ③ 보통이다. (131 명)
- ④ 대체로 모른다. (66 명)
- ⑤ 거의 모른다. (11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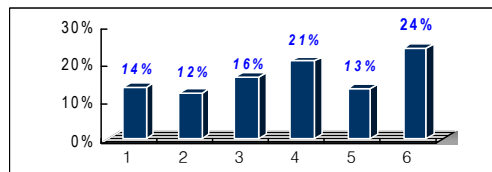


논술의 방법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보통이다.’를 중심으로 ‘알고 있다.’의 경향과 ‘모른다.’의 경향이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실제 학생들을 지도해보면 논술에 대한 기본적인 능력이 매우 부족하게 나타나는 것에 비해 이론적인 논술의 방법은 어느 정도 학습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따라서 기본학습을 바탕으로 실제로 논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이 구안되어야 한다.

【 질문 6 】 : 논술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6. 논술에서 가장 자신없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 ① 주제 및 소재 정하기 (39 명)
- ② 논거 정하기 (35 명)
- ③ 개요작성하기 (47 명)
- ④ 글구성하기 (59 명)
- ⑤ 표현하기 (38 명)
- ⑥ 글다듬기 (69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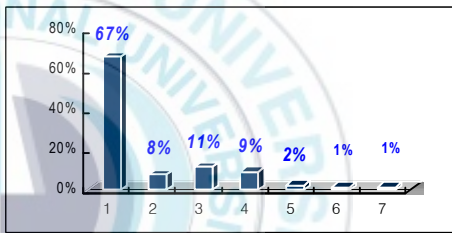


논술에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한 결과는 각 단계별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논술의 각 단계 중 특별히 주목해야 할 교육단계가 따로 있지 않다는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 중에서 ‘글 다듬기’와 ‘글 구성하기’가 각각 20%이상으로 다소 높은 비율을 보였다.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지 않고 개괄적으로 서술하는 것으로부터 한 단계 나아가 글을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다듬는 활동에 대해 다소 어려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 질문 7 】 : 논술을 잘하기 위한 방법

7. 논술을 잘 하기 위한 좋은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니까?

- ① 독서를 많이 한다. (191 명)
- ② 논술이론을 공부한다. (22 명)
- ③ 토론을 많이 한다. (33 명)
- ④ 많이 써 본다. (26 명)
- ⑤ 국어(쓰기)시간에 열심히 한다. (7 명)
- ⑥ 첨삭지도를 받는다. (4 명)
- ⑦ 기타 () (4 명)



많은 수의 학생(67%)이 독서를 논술을 잘하기 위한 방법으로 선택하였다. 이는 독서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학생들에게 잘 인식되어 있기 때문이라 생각되며, 논술교육도 읽기활동과 병행하여 통합적으로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독서활동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활동이므로 가장 효과있는 독서활동과 더불어 논술교육도 일관성있게 지속적이어야 한다는 점도 생각해볼 수 있다. 나머지 항목들은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그 중에서 토론에 대한 관심도가 다소 높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따라서 논술교육은 언어활동의 읽기, 말하기, 듣기와 함께 이루어져야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V. 학급활동을 통한 통합적 논술교육 적용

1. 대상학교 및 학생 모델 선정

통합적 쓰기 학습 지도의 모형을 구안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상학교와 학생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일반적인 중학생으로서 쓰기 학습에 일반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및 학생을 선정하였다.

대상학교 : 부산지역 G중학교

대상학생 : 2학년 ○반 남학생 20명 여학생 18명

위의 학교는 부산진구에 소재하며 진구 중에서도 새로 형성된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다. 주변 지역은 대부분 아파트 주거단지이며, 아파트를 제외한 주변 지역들도 대부분 주택지역으로서 학습 분위기가 잘 조성되고 있는 지역이다. 또한 학교의 구성원으로 배정되는 학생들도 대부분 학교 주변의 아파트 단지 내에 거주하는 학생이거나, 그 주변 주택가에 거주하는 학생이다. 지역자체가 아파트단지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현 주택상황에 따른 거주자의 상황으로 보아 일반 주택지역이나 지역적으로 개발되지 않은 지역에 비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덜 느끼는 지역이라는 점을 말할 수 있다.

이는 곧바로 학부모와 학생의 교육적 관심정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지역은 다른 여러 지역에 비해 가정의 지출 분야 중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을 교육에 지출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는 학부모와 학생 모두가 교육에 열의를 보이며 진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학업분위기는 정규교과가 아닌 과외적 교육으로서의 논술교육에 대해 진학과 관련하여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관

심이 다른 어떤 지역의 학생들보다 높아 연구를 수행하기에 적절하였다.

중학교의 시기는 사춘기를 거치면서 생물학적으로나 사회학적으로나 성인으로 나아가기 위한 단계로서 자아가 형성되며 주어진 사건에 대해 종합적으로 사고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초기의 단계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는 3개 학년 모두가 7차 교육과정 상에서 국민공통교육과정이며, 의무교육과정으로서 거의 대부분의 국민 모두가 거치는 학습과정이다. 따라서 논리적 사고를 통한 문제해결을 중심으로 하는 좀 더 깊은 수준의 논술을 학습하기 이전에 반드시 접근되어야 하는 논술교육의 시기이다. 그 중에서도 2학년의 시기는 중학교 1학년의 시기를 거치면서 초등학교와 다른 중등학교의 새로운 교육방법과 학교환경에 대해 어느 정도 적응된 상태이며, 유년기의 시기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1학년의 시기보다 자아의 형성이 대부분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첫 선택으로서의 고등학교 진학이라는 부담을 안고 있는 3학년의 시기에 비해서는 여유를 가지고 학교생활에 임해 자기 스스로 여러 학습 분야를 탐구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논술교육에 학교구성원 자체인 교사, 학생, 학부모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교육의 시기로서 가장 적합한 시기인 2학년의 학급을 선정하여 연구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은 2학년 10학급 중에서도 학습 분위기가 대체적으로 원만하며, 학업을 아예 포기하거나 관심이 없는 학생이 거의 없는 학급이어서 연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또한 연구자 자신이 직접 경영하는 학급이었으므로 전체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 각 교과 담당교사들과 학부모님들에게 연구의 목적을 알림으로써 효율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직접적인 활동대상자인 학생들의 호응도 적극적으로 얻을 수 있었다. 더불어 종합적인 문제해결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배양하는 데 주된 교육의 목적을 가

지고 있는 현 교육의 분위기도 대상자들이 논술교육에 흥미 및 동기를 유발하고 직접 성실히 참여하는 데 일조하였다.

2. 쓰기학습 모형 구안 및 실제 지도

1학기 8주(3~4월)의 프로그램으로 계획하여 구안하였다. 학교교육과정은 1년 내내 매우 빠듯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연구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점에 유의하였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중학교 교육과정은 교과시간이 모두 각 교과목의 담당교사가 각 학급에서 교육하는 팀티칭의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학급담임교사라고 해서 학급의 학생들과 특별히 교과시간을 활용하여 학급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 교과시간을 제외한 학교활동시간도 전체학교활동시간에 비해서는 매우 적게 배정되어 있어서 담임교사와 학급학생이 밀접하게 자주 대면할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나 전체적인 학교운영이 학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급에서 지내는 활동시간이나 심리적으로나 학업적으로 학급담임교사에게 의지하고 집중하는 경향이 매우 뚜렷한 점을 활용하여 논술교육에 적용하였다.

1주 내에서는 아침 5번의 학급시간과 교과시간으로 배정되어 있는 주 1시간을 주 활동시간으로 정하고, 그 외 기타 학급시간들을 보조 활동시간으로 활용하였다. 아침시간을 중심으로 한 학급시간은 대부분 개별활동을 위주로 하는 논술활동을 적용하였고, 교과시간으로 배정되어 있는 1시간은 논제와 관련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 논술활동을 위한 준비단계

(1) 1주. 논술에 대한 개념인식 및 동기부여

학생들에게 논술을 하자고 하면 그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모를 뿐만 아니라, 무엇인가를 쓰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특히 연구의 대상인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1학년 과정을 거치면서 학습하는 방법을 배우기는 하였으나, 자기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학습 방법을 확립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자아가 형성되고 있는 단계이므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표현하는 방법에 많은 미흡한 점을 보이는 시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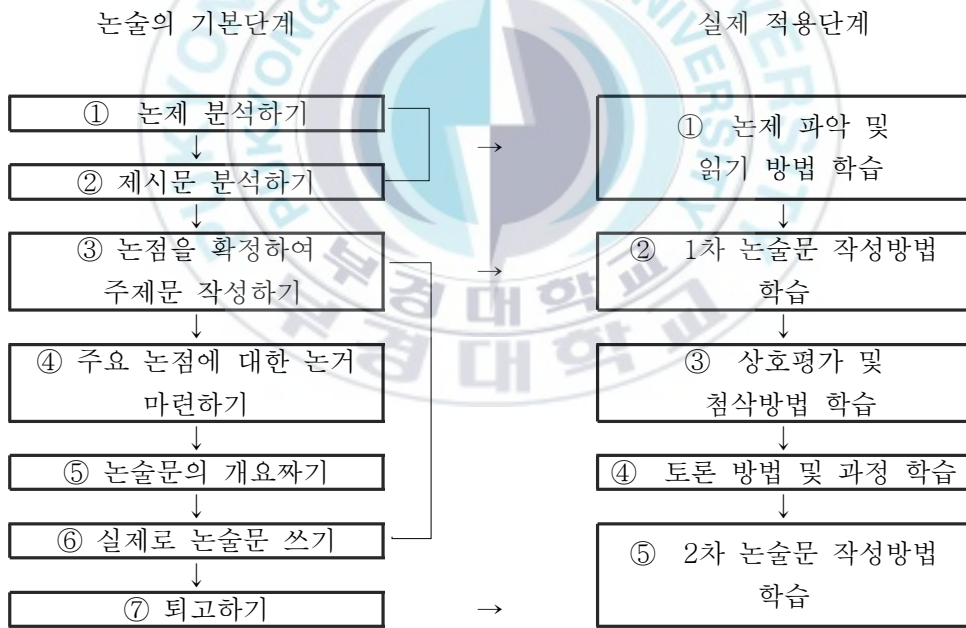
따라서 논술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먼저 인지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논술은 ‘별다른 무엇’이 아니라 주어진 글이나 문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종합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표현하는 것이 논술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실제 논술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논술에 대한 개념을 학습하는 과정을 통하여 대상자들은 논술에 대한 두려움을 다소 해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적극적으로 논술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다.

또 논술이 현 상황에서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를 이해시킴으로써 논술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불러올 수 있었다. 논술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사회생활의 기본 바탕이 되며, 의사소통의 한 방법으로서 자신의 의견을 상대방에게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설득하는 데 사용되는 점을 언급하였다. 학생들의 본연의 임무이며 목표인 학습도 각 학문을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파악하는 논리적 사고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며, 논술을 활용하면 학습에도 효과가 있다는 여러 연구결과들을 알려주었다. 실제 국어과나 도덕과, 사회과에서는 실제 학습방법으로 논술이 활용되고 있다는 점도 알려주었다. 진학을 하는 데 있어서 진학의 평가자료로 사용되는 여러 방법들도 논리적 사고과정을 필요로 하는 논술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학생들이 논술에 깊은 관심을 보이기에 충분한 동기가 되었다.

(2) 2주. 방법 설명 및 활동의 시연

개념인식 및 동기부여 단계를 통하여 두려움을 다소 완화시키고, 논술에 대한 의지를 가지게 하였으나, 실제로 논술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유의사항을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알지 못하고 있었다. 동기가 부여되고 중요성이 인식되어도 방법을 모르는 것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은 상대적으로 흥미를 감소시키는 데 매우 많은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였다. 이에 실제로 논술을 위한 사고과정과 의사소통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실제 논술활동은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를 거치게 되는가에 대해 학습¹⁰⁾하였다.

< 표 V-1 > 논술의 단계와 실제 적용단계의 비교



10) 학습자료와 내용은 2007년 겨울방학 부산시남부교육청과 테레사여자고등학교에서 주체한 토론·논술 직무연수의 「논술쓰기의 절차와 방법」(신관수)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였다.

논술의 단계를 <표V-1>의 왼쪽과 같이 7단계로 제시하였으나 이후 학급활동을 통하여 논술을 적용하는 단계는 <표V-1>의 오른쪽과 같이 조정하여 5단계를 거쳐 실시하도록 하였다. 실제적용단계의 논술문 작성방법인 ②와 ⑤는 기본단계 ⑤ ‘개요짜기’와 ⑥ ‘실제 논술문 쓰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학습하였다. 그리고 읽을거리 및 자신의 생각과 함께, 실제 적용단계 ④의 토론과정을 거쳐 토론에 참여하는 다른 학생들의 의사소통과정을 통하여 논점에 대한 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1차에서 작성된 논술문보다 좀 더 확장되고 객관적이며, 구체적인 다양한 논거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기본단계 ⑦의 퇴고하기 과정은 실제 적용단계 ③의 상호평가 및 첨삭을 통하여 1차를 통해 작성한 논술문을 자신과 급우들이 협력적으로 퇴고할 수 하였다.

(가) 논제 파악, 읽기 및 논술문 작성 방법 학습¹¹⁾

논술의 기본이해를 통해 논제의 구성을 파악하고, 주어진 논제를 통해 논술이 직접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가를 단계별로 학습하였다. 논술의 단계는 논제분석하기, 제시문 분석하기, 논점을 확정하여 주제문 작성하기, 주요 논점에 대한 논거 마련하기, 논술문의 개요짜기, 실제로 논술문 쓰기, 퇴고하기의 단계로 구분하였다. 또 논술 후에 논술의 평가에 대한 평가기준을 살펴봄으로써 논술문이 갖추어야 할 요건들을 학습하여 논술문 작성시에 유의하도록 하였다. 실제 주어진 논제에 대해 작성된 각 단계별 논술과정의 예시를 통하여 문장별로 개요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개요를 바탕으로 논술문을 완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11) 개요짜기 및 실제 논술문 쓰기의 예시 및 학습지는 부록 2에 첨부하였다.

(나) 상호평가 및 첨삭방법 학습¹²⁾

상호평가 및 첨삭의 방법은 앞에서 학습한 논술 실제과정의 단계를 바탕으로 각 단계별로 유의해야 할 사항이 논술문에 잘 반영되었는지를 평가기준을 통하여 평가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첨삭을 할 수 있도록 첨삭의 방법을 학습하였다. 평가기준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상호첨삭의 과정을 학습함으로써 논술에서 갖추어야 할 요건이나 유의해야 할 사항, 또는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사항들을 인지하게 하였다. 이러한 학습과정은 다른 사람에게 의해 자신의 글을 평가하게 함으로써 스스로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평가자가 스스로 논술문을 작성하는 작성자가 되었을 때 논술문을 작성함에 있어 인식하여야 하는 유의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첨삭의 여러 사례들을 살펴봄으로써 실제 첨삭의 방법을 알 수 있도록 하였고, 맞춤법과 단락구성 및 어휘사용, 자연스러운 문장표현에 대한 학습도 실시하여 논술의 평가기준 중 표현과 관련된 내용도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토론 방법 및 과정 학습¹³⁾

논제와 관련된 토론단계는 논술이 하나의 의사소통 방법이라는 측면에서 읽기, 쓰기와 함께 말하기, 듣기를 통한 통합적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이 기대된다. 또한 토론을 직접 참여하는 학생은 토론거리에 대해 직접 적극적으로 자료를 탐색하는 자기주도적 학습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토론에

12) 학습자료와 내용은 2007년 겨울방학 부산시남부교육청과 테레사여자고등학교에서 주최한 토론·논술 직무연수의 「논술 첨삭의 원리와 방법」(신관수)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였다.

13) 학습자료와 내용은 2007년 겨울방학 부산시남부교육청과 테레사여자고등학교에서 주최한 토론·논술 직무연수의 「토론의 진행과 평가-민사고 토론자료집(백춘현) 재구성」(신관수)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였다.

직접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도 자신만의 생각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의 의견 개진을 통한 사고의 확장을 이룰 수 있고,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의 의견을 들음으로써 다른 사람의 의견에 동의하거나 자신의 주장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통합적 사고과정이 논술에 반영되어 좀 더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논거를 제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토론의 절차 및 방법은 전국 중학생 우리말 토론대회(CEDA : Cross Examination Debate Association 형식 적용)의 모형을 재구성하여 만든 방법을 적용하였다.

- 전략짜기 및 역할 분담

1. 학급 내에서 8명 정도로 구성된 5개의 모둠을 만들었다.
2. 8명은 찬성과 반대로 각 4명씩 두 팀으로 나누고, 발제, 1차 논박, 2차 논박, 정리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3. 각 모둠이 3-7주차에 토론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 모둠은 토론을 들으면서 평가하도록 하였다.

- 논제에 대한 전체 토론의 진행

1. 1차로 작성한 논술문을 바탕으로 한 모둠이 토론하고, 나머지 모둠은 토론을 평가하였다.
2. 발제 각 3분, 작전회의 2분, 1차 논박 각 3분, 작전회의 2분, 2차 논박 각 3분, 작전회의 2분, 교차질의 2분, 평가자 협의 6분, 총평 및 결과 발표 4분의 순서로 진행하였다.
3. 토론 후 토론에 참가하지 않은 모둠은 각 모둠 중 1명(매 토론시마다 다른 모둠원이 참여함)이 모여 교사와 함께 승패를 나누고, 교사는 마지막 총평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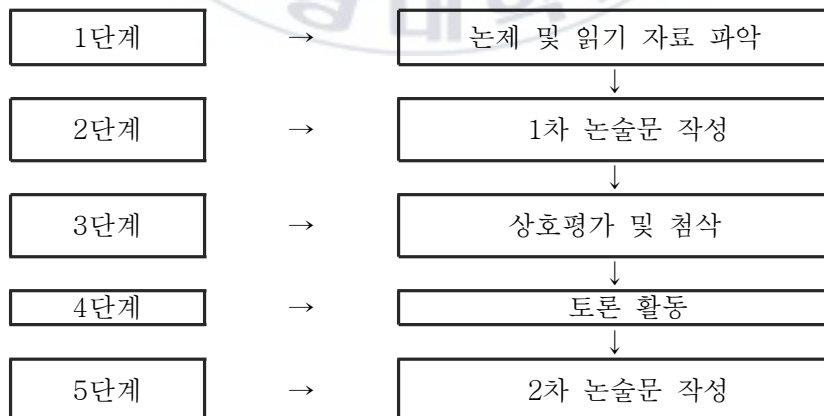
(라) 1차 논술문 퇴고 및 2차 논술문 완성 방법 학습

상호 첨삭과 토론을 마친 후 다시 한 번 자신이 작성한 글을 되고하여 완성된 논술문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글다듬기 과정의 중요성 및 방법을 설명하고 1차에 작성한 논술문과 그에 대한 평가 및 토론 활동을 종합하여 개요를 작성하도록 한 후 모든 활동을 망라하여 2차 논술문을 완성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사가 첨삭하여 다시 한 번 자신의 글에 대해 스스로 인식하지 못했던 문제점을 확인하고 다음 논술문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나. 실제 논술활동 단계

3주에서 7주차에 걸쳐 5주 동안 5개의 논제를 제공하여 논술활동을 실시하였다. 주어지는 논제는 시사적으로 현 시대에 논의될만한 논제 중에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만한 흥미있는 논제, 또는 연구대상인 학생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논제를 선정하였다. 그 중에서도 토론과정을 거쳐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도록 하였으므로 찬반을 나눌 수 있는 논제를 선택하였다.

< 표 V-2 > 실제 논술활동 단계



관련자료를 학생 개개인이 스스로 찾아 논제에 대한 논거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하나 프로그램에 시간적 제약이 많고, 학생들의 과제가 너무 과중할 경우 논술 자체에 대한 반감을 가질 수 있으므로, 읽을 거리는 교사가 준비하여 공통된 자료를 가지고 논제와 관련된 논거를 추출하고, 논술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논제파악 및 읽기 활동

논제를 제시하고 관련자료¹⁴⁾를 제공하여 아침 학급시간을 이용하여 읽도록 하였다.

(가) 3주. 남성보다 여성을 우선적으로 대우해야 한다.¹⁵⁾

현대 사회에서 무엇보다 중시되는 가치는 평등이다. 평등에는 남녀 간의 평등, 인종 간의 평등, 종교의 평등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 논제에서 쟁점이 되는 것 바로 남녀 간의 평등이다.

여성은 역사적으로 남성보다 열등한 사회적 환경에서 살아왔다. 그러나 근대사회의 도래와 함께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다는 사회적 인식은 구시대의 유물이 되어 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남성과 여성의 지위가 같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 여성은 남성보다 육체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보호받고 우대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여 이 논제를 대상자에게 제시하였다. 본 프로그램 적용 연구대상자는 남녀 각 각 20명, 18명으로 이루어져 있는 남녀합반이다. 특히 이 시기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있는 시기이며, 또 남성과 여성의 행동양식의 차이로 인해 또래집단을 구

14) 본 연구에서 제시한 5개의 논제 이외의 여러 다양한 교과와 관련이 있는 논제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부록 3에 첨부하였다.

15) 민족사관고 2002 토론캠프 워크북 재구성

성하는 데 있어서도 동일성별끼리 어울려 활동하는 경향을 보인다.

대상자들은 논술프로그램의 첫 논제로서 이 논제를 매우 관심있어 하였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에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보였다. 토론모둠도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각각 4명씩이었으나, 남학생이 모두 반대의 팀을 구성하거나 여학생이 모두 찬성의 의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남녀 각각 2명씩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표현하여 남학생의 여성우대 의견과 여학생의 여성우대 반대 의견은 전체학생들의 논술진행에 더욱 높은 관심을 가지게 하였다.

(나) 4주. 체벌은 사랑의 매이다.¹⁶⁾

최근 학교현장에서 교사가 학생 체벌의 문제를 일으켜 사회에 충격을 안기는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반면 ‘무릎을 꿇은 교사’의 경우처럼 교권을 침해당하는 경우도 있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서로 불신하고, 사제시간의 존경과 사랑이 점점 희미해져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체벌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과 입장의 차이’가 더욱 이러한 경향을 부추기고 있다.

이 논제 역시 대상자들의 높은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논제였다. 대상자들이 직접 학교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는 여러 활동 속에서 체벌의 문제가 현실로 직면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체벌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측되어 토론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체벌이 사랑의 매이다.’라는 논제에 찬성의 의견을 가지고 있어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찬성과 반대의 토론자 모두 논리적이고 적절한 근거와 생각을 제시하여 청중도 각 의견에 동의하고 공감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실제 자신의 논술문을 구성할

16) 유레카논술(2006. 7. 19) 재구성

때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었다.

(다) 5주. 정보화 사회는 인간에게 유익한 살기 좋은 사회인가?¹⁷⁾

사회가 발전되어감에 따라 정보화의 경향도 뚜렷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보화사회를 바라보는 견해도 두 주장이 맞서고 있다. 낙관론자들은 이전 산업사회에서 존재했던 불평등과 갈등의 문제들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한다. 반면 비관론자들은 오히려 계급간의 불평등이나 권력의 독점 등과 같은 현상은 그대로 지속되거나 오히려 악화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구조적 실업,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시민에 대한 감시와 통제 등이 새롭게 문제로 더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

연구대상자들인 학생들은 새로운 여러 정보기술의 발전에 매우 민감한 세대이다. 새로운 변화를 민첩하게 받아들이고 실제로 응용하는 능력도 기존세대보다 훨씬 빠르다. 그러나 그에 대한 부작용도 그만큼 기존세대보다 많이 깊이 나타나는 것이 현실이다. 대상자들은 이 논제에 대해 다소 어려워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읽기자료와 기본배경설명을 거친 후 논술에서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는 데는 관심을 보이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라) 6주. 성형과 다이어트 열풍, 미를 추구하는 현대인, 진정 자신을 위한 일인가?¹⁸⁾

소비 자본주의 사회의 도래와 함께 인간의 몸은 인공적인 노력으로 얼마든지 변형시킬 수 있는 문화적인 매체가 되었다. 아름다움과 젊음에 대한 욕망을 끊임없이 자극하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성형수술은 미적인 행위로

17) 2007학년도 겨울방학 토론논술 캠프 논제 재구성

18) 2007학년도 겨울방학 토론논술 캠프 재구성

까지 인식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더 나아가 아름다운 얼굴과 몸의 이미지가 하나의 권력, 능력으로 간주되는 외모 지상주의가 팽배한 상황이다.

연구대상자들은 현재 자아가 형성되는 시기로서 몸과 마음의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특히 자신과 타인의 구분에 의한 뚜렷한 인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이다. 더구나 이 시기의 학생들은 여러 매체를 통해 보여지는 대상들의 외모적인 측면에 매우 깊은 관심을 보이며 사람을 좋아하기도 싫어하기도 한다. 또한 이같은 현상은 자신에게도 또 주변 또래동료들에게도 적용해 미에 대한 관심이 태도나 행동으로 뚜렷이 나타난다. 이 논제는 대상자가 어떤 시선으로 자신의 몸을 들여다보느냐의 입장차이를 확인하게 함으로써 인간의 욕망에 대한 깊은 이해와 현대 소비사회의 문제점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하였다.

(마) 7주. 포도를 포기한 여우는 현명하다.¹⁹⁾

이 논제는 이솝우화에 나오는 여우의 행동을 현명한지 어리석은지 평가하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여우의 변명을 비겁하고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며 우화의 목적도 그러한 점을 깨우쳐주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편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현대사회의 여러 정신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명한 판단일 수 있다.

대상자들은 이솝우화의 읽기 자료를 어렸을 때부터 접해왔으며, 그를 통해 삶의 지혜를 습득해왔다. 이미 알고 있던 여러 동화나 우화의 내용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견해들은 요즘 창의성 교육의 여러 교육자료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추세를 보인다. 한 사건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를 가질 수 있다는 점과 또 이미 알고 있었던 것에 대해 역발상을 한다는 것이 이 논제에 대상자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게 하였다.

19) 민족사관고 2007 겨울 토론캠프 워크북 재구성

(2) 1차 논술문 쓰기(개별활동)

주어진 논제와 관련된 자료를 읽은 후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1차적으로 논술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준비단계에서 실시한 논술작성단계를 고려하여 논술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논술문 작성지를 구성하여 제공하였다. 작성지에는 논제를 제시하였고 서론, 본론, 결론의 각 문장별로 작성할 순서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 그림 V-1 > 논술문 1차 작성지

논술 글(짧은 글) 쓰기	
논제 4) “성형과 다이어트 열풍, 미(美)를 추구하는 현대인, 진정 자신을 위한 일인가?”를 논제로 하여 300자(10문장) 논술 글을 적어 봅시다.	
서론	4▶ 9▷
본론	2▶ 5▷ 6▷ 3▶ 7▷ 8▷
결론	1▶ 10▷

각 문장을 30자로 작성됨을 기준으로 하여 10문장을 구성함으로써 300자 논술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문장의 앞에 있는 숫자는 논리적으로 사고할 때의 순서와 논술문의 개요를 짤 때의 순서로 사고단계에 따라 논술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논제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결정하고 논술문에서 결론의 의견

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2▶ 3▶ 결론에서 나타낸 자신의 의견에 대해 두 가지 정도의 논거를 본론으로 구성하여 제시하도록 하였다.

4▶ 결론과 구체적 근거가 마련되면 글의 시작부분으로서 독자의 관심을 유발하고 글을 시작하는 도입으로서의 내용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5▷6▷7▷8▷ 본론에서 제시한 두 논거에 대한 부연설명을 각 각 두 문장으로 표현하도록 하였다.

9▷ 서론의 중심문장을 뒷받침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기 위한 연결 문장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10▷ 글의 마지막 문장으로서 결론의 중심문장을 뒷받침하고 글의 전체 내용을 요약 마무리하여 마지막으로 독자에게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설득할 수 있도록 작성하게 하였다.

다음 두 그림은 2회차와 3회차에 걸쳐 실시한 논술 활동 중에서 읽을 거리를 읽은 후에 첫 번째 활동으로서 개별 활동을 통하여 작성한 1차 논술문의 예시이다.

2회차 천○○양의 1차 논술문은 주관적인 어조로 작성되거나, 근거를 제시하는 부분에 있어 객관성이 떨어지는 여러 부분을 찾아볼 수 있다.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두 가지 주장으로서 2, 3에 대한 5, 6, 7, 8번 문장은 독자에게 체벌의 필요성을 설득시키기에 일반적인 근거로 적절히 못하다.

결론을 구성하는 1, 9번의 문장도 자신의 의견을 상대방에게 강하게 표현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특히 9번 문장의 경우는 전체 글의 일관성에도 문제의 소지를 담고 있다.

< 그림 V-2 > 2회차 1차 논술문 예시

논술 글(짧은 글) 쓰기	
논제 2) “체벌은 사랑의 매이다.”를 논제로 하여 300자(10문장) 논술 글을 적어 봅시다. - 14번 천○○ 양	
서 론	4▶ 최근 교사가 학생을 심하게 때려 사회에 충격을 주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반면에 ‘무릎을 꿇은 교사’ 처럼 교권을 침해당하는 경우도 있다. 10▷ 사제지간 사이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바뀌어가며 불신의 벽이 높아져가는 것이다.
본 론	2▶ 체벌은 선생님의 사랑과 애정이므로 학생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학습시켜준다. 5▷ 요즘 학생들은 <u>잘못을 해도 혼나지 않는다</u> 는 생각에 잘못을 저지른다. 6▷ 이 때 체벌은 사랑의 매로서 <u>학생을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u> 하는 것이다. 3▶ 그리고 <u>한국은 경제 대국이 되기가 힘들어</u> 훌륭한 인재가 필요하다. 7▷ 잠시는 기본이 나쁘고 힘들겠지만 <u>나중에 사회 적응을 잘 할 수 있게</u> 된다. 8▷ 그래서 <u>바르게 자라 훌륭한 인재가 되는</u> 것이다.
결 론	1▶ 그러므로 체벌은 사랑의 매이다. 9▷ <u>너무 심하면 좋지 않지만</u> 적당한 체벌은 약이 될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5회차에 걸친 논술문 중에 한 번의 활동을 거친 2회차 논술활동이라는 점과, 전체 5단계에 걸친 활동 중에서 논제파악 및 읽기 활동을 거친 사실상 표현으로서의 첫 번째 활동인 1차 논술문으로서 나타나는 경향이라고 볼 수 있다.

< 그림 V-3 > 3회차 1차 논술문

논술 글(짧은 글) 쓰기

문제 3) “정보화 사회는 인간에게 유익한, 살기 좋은 사회인가”를 주제로 하여 300자(10문장) 논술 글을 적어 봅시다.

- 16번 하○○

서 론	4▶ 현대사회는 지식과 정보가 주요한 원천이 되는 <u>정보화 사회</u> 이다. 10▷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과학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정보화 사회로 진전되는 현상을 <u>지극히 우려하는 눈으로 보고 있다.</u>
본 론	2▶ 우선, <u>문화적으로 다양한 문화가 아니라 획일화된 문화가 지배적인 것이다.</u> 5▷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문자화되고 기호화된 정보를 통해 형성되므로 <u>인간성 상실이 우려된다.</u> 6▶ 문화 산업의 발달은 <u>소비적이고 향락적인 환경을 조성시킨</u> 것이다. 3▶ <u>정치적 측면에서는 새로운 전체주의의 출현가능성을 들 수</u> 있다. 7▷ 정보 통신기술을 악용해 치밀하게 국민을 통제하는 독재권력이 생겨날 소지가 있다. 8▷ 그에 대한 예로 미국의 ‘클리퍼 계획’이라는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관리 계획이 있다.
결 론	1▶ 그러므로 정보화 사회는 인간에게 마냥 <u>유익한 사회가 아니다.</u> 9▷ <u>정보화 사회의 단점을 잘 다듬어서 진정한 정보화 사회를</u> 만들어야 한다.

< 그림 V-3 >의 학생논술문은 직접적 논술쓰기 활동의 3회에 접어들면서, 2회차 1차 논술문에 비해 각 각 2회의 1차 논술문 작성과 2차 논술문 작성의 효과가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서론과 본론, 결론에서 각 각 서술되어야 할 내용에 대해 인지하고 논술문에 나타

나는 경향을 보였다. 3회차 하○○ 양의 경우도 1회차 논술문과 2회차 논술문에 비해 3회차 논술문이 좋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서론에서 논제의 내용을 언급하면서 현 상황을 파악하였고, 논의거리를 드러내면서 자신이 앞으로 서술할 견해에 대해 도입으로서의 글쓰기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다. 본론에서는 문화적 문제와 정치적 문제를 다각도로 접근하여 설득력있게 자신의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결론에서도 자신의 생각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앞으로의 정보화 사회에 대한 방향까지 제시하고 있다.

(3) 상호평가 및 첨삭하기(개별활동)

학급 내에서 작성한 논술문을 임의적으로 상호평가하도록 하였다. 논술에 대한 실제 능력을 완전히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글을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논술학습 상황에서 같이 활동에 참여하는 동급 학생으로서 다른 학생의 글을 정확하게 첨삭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웠다. 아래 예를 보더라도 첨삭 1이나 4는 논술 글의 전체 내용에 대한 첨삭으로 적절한 첨삭이라 보기 어렵다.

하지만 이 단계는 정확히 다른 학생의 논술을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다. 먼저 자신의 논술을 작성한 후에 다른 학생의 의견을 살펴보고 자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의견이나 구체적 근거를 보충하고, 글의 구성방법이나 표현을 포함한 논술의 여러 측면을 취사선택(取捨選擇)하기 위한 단계이다. 또 다른 학생의 글을 평가해봄으로써 자신이 글을 쓸 때 유의해야 될 사항이나 평가항목으로서 지켜야 할 여러 사항에 대해 다시 한 번 학습하게 하고, 자신의 글도 다른 학생으로 하여금 평가받게 하여 유의하지 못하거나 생각하지 못했던 주의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표이다.

< 그림 V-4 > 1차 논술문에 대한 상호침삭

<p>3회차 1차 논술문 - 35번 변○○ 군의 글</p> <p>요즈음 시대는 정보화 사회가 되어 가고 있다. <u>나는 정보화사회로 시대가 바뀌어 가는게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u></p> <p>그러나 정보화사회가 우리에게 주는 이익보다 불이익이 더 많은 것 같다. 먼저 정치적 측면에서는 새로운 정보통신을 악용하여서 국면을 통제하는 독재자가 생겨날 수 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u>이익이 소수의 독재자가 독점할 수 있다는 것이다.</u></p> <p>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불균형의 심화를 들 수 있다. 정보화 사회에서는 정보가 가장 중요한 재산이다. 그런데 정보가 불균등하게 분배될 경우 <u>경제적 빈부차가 발생한다.</u></p> <p>그래서 정보화 사회는 유익하지 않다. 정보화사회는 천천히 도입을 하는 게 좋은 것 같다.</p>
<p>45번 하○○ 군이 침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론에서는 자신의 생각보다 현상파악을 하는 게 좋다. 2. 자신없는 어휘(- 같다.)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3. 문장의 앞과 뒤가 잘 맞지 않는다. 4. 경제적 빈부차는 지금도 있으므로 '경제적 빈부차가 심해진다.'라고 쓰는 게 좋다. 5. 띄어쓰기가 맞지 않다.

준비단계를 통해 상호평가와 침삭의 방법을 학습하였으나 자신의 글만 작성하고 실제로 다른 사람의 글을 직접 평가해보지 않았을 때에는 논술의 여러 사항에 대해 막연하게 생각하고 느끼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다. 이후 실제로 침삭 및 상호평가를 통해 대상자들은 자신이 아닌 타인의 여러 생각들을 접할 수 있었고, 구체적인 근거를 보충할 수 있었다. 또 여러 번의 상호평가를 통해 다른 학생이 자신의 글에 어떤 점을 평가하였는지를 파악함으로써 본인의 논술문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피드백하여 자신의 2차 논술문에서, 또 다음 회차의 논술문에서 다른 논제를 가지고 논술문을 작성할 때도 그 결과를 반영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상호첨삭을 받은 학생은 다른 친구의 의견도 수용하고 다양한 견해를 접하게 됨으로써, 실제 2차 논술문을 작성할 때 첨삭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여 1차 논술문에 비해 완성도 높은 글다듬기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서의 효과가 있었다.

< 그림 V-5 > 상호첨삭이 반영된 2차 논술문

3회차 2차 논술문

인즈은 시대는 정보화 사회가 되어 가고 있다. 정보화 사회는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며 각종 생활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러나 정보화 사회의 문제점도 갈라할 수 없다.

먼저 정치적 측면에서는 새로운 정보통신을 악용하여서 국민을 통제하는 독재자가 생겨날 수 있다. 그들은 모아진 정보를 정치적·이념적 통제 등의 목적에 이용할 위험이 크다.

두 번째 경제적 측면에서는 정보가 불균등하게 분배될 경우 사회적빈부차가 심해질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볼 때 사생활을 침해하여 정보를 독점한 지배세력이 인권을 빼앗을 수 있다. 이러한 개인주의는 이기주의로 심화되고 결국 사회갈등을 증폭시킬 것이다.

그래서 정보화 사회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정보화 사회의 변하는 문제의 해결방법을 생각해 보면서 도입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4) 토론하기 활동을 통한 논술활동 지원(전체활동)

논제와 읽기자료를 이용하여 1차 논술문을 작성하였을 때와 비교하여 토론활동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관심이 매우 높았다. 모든 학급의 구성원이 토론에 참여하기 때문에 자신이 토론에 참여해야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과 태도에 대해 고민하면서 다른 모둠이 발표하는 내용과 태도를 유의깊게 살펴보는 모습을 보였다.

< 그림 V-6 > 2회차 토론발표지

팀명 : 논술 드래곤

토론 주제 : 체벌은 사양의 매이다.

입장 : 찬성 반대

발제자 : 이○○ 논박자 1 : 임○○
 논박자 2: 이○○ 정리자 : 나(이○○)

1. 토론의 내용 요약 :	
찬성팀	반대팀
<p>옛날 서당-히초리를 통해 학생들의 몸바르지 못한 행실과 품행을 바로잡음, 사회에 업적을 남긴 인물들-업적한 교육받음, 우리나라 자원부족-인재를 길러야 함, 자신을 위해 더 나쁜 길로 빠지지 않게 함, 학생은 완전하나 성인X-대함만으로 해결 불가능, 체벌을 통해 예절교육, 선생님의 관심과 사랑·애정의 표현</p>	<p>체벌로 인한 교사, 학부모 갈등, 체벌은 폭격이며 요즘은 폭행, 인격적 침해, 사육이지 교육이 아님, 학생이 원하는 교육 아님, 진정한 교육 아님, 자신감↓, 창조력↓, 찬성하는 선생님은 능력없음, 현 사회는 민주사회</p>
2. 발표 후 느낀 점 :	
<p>요즘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논술을 다텔선생님과 같이 공부하고 또 직접 체크하면서 도와주시니 글쓰기 실력도 상승한 것 같고 논술에 대한 자신감도 대폭 상승하였다. 또 토론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 번 내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고, 친구들의 의견을 들으니 다양한 의견을 접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앞으로 어려운 논제가 나와도 이 경험을 바탕으로 나의 의견을 타당한 근거를 붙여 서술할 수 있을 것 같다.</p>	

1/2

상호평가(첨삭)을 통해서도 각 주제 당 한 명 정도의 다른 학생들의 의견만 볼 수 있었으나 토론은 공통된 주어진 논제에 대해 토론에 참여하는 8명 학생의 의견을 모두 들을 수 있다는 점이 학생들에게는 매우 큰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토론에 직접 참여하는 8명의 학생은 토론에 대한 자신의 발표문 정리 및 팀원의 발표내용 요약과 실제 토론 후의 느낀 점을 서술하도록 하였다.

3. 자신의 발표문 정리:

개인의 인권이 중온하게 여겨지는 현대사회에서 체벌은 폭력입니다. 선생님들이 사랑의 매로 포장한 체벌은 현대사회에서 사라져야 할 불필요한 존재입니다. 체벌은 교사나 학부모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고, 학생의 인격이 침해당할 수 있습니다. 체벌을 이용한 교육은 사육(飼育)이지 교육이 아닙니다. 이는 학생이 원하는 교육이라 할 수 없으며 진정한 교육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교육에 각목 등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체벌은 창의적 계발을 방해하는 일률적 교육의 대표적 무기이기도 합니다.

체벌은 학생의 태도변화 유도가 목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신적 혼란을 겪는 청소년 시기에 외부에 의해 강요적으로 변화를 유도하는 것은 오히려 반발을 심화시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창의적 재능 계발을 목표로 학생들을 교육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을 하는 학생들을 작은 잘못으로 체벌을 하는 것은 학생의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창조력을 없애는 일등공신입니다. 100분 토론에서도 체벌은 언젠가는 사라져야 할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체벌이든 민주사회에선 허용될 수 없습니다. 체벌에 찬성하는 교사들은 그만큼 자기가 학생들을 설득시킬 능력과 자질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을 무시하고 체벌을 계속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모독입니다. 학생들은 개맞듯이 맞아야 맞을 들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2/2

같은 학급에서 급우로서 서로 절친하게 지내면서 서로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상황에서 평상시 일상적 상황에서의 의사소통과는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도 학생들이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원인이 되었다. 토론이라는 과정은 읽기나 쓰기와 달리 동일한 시간과 공간 안에서 서로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그 때마다 적절하고 민첩하게 전략적으로 반응해

야 한다는 점도 토론을 흥미롭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찬성과 반대의 의견으로 나누어 발제, 논박 1, 논박 2, 정리, 교차질의에 각 각 총 3점의 배점을 나누어 주어 모든 학급의 구성원이 평가하도록 하였다. 토론이 마무리되면 각 모둠에서 선발된 평가자가 각 모둠의 점수를 통합하여 가지고 오고, 모인 평가자들은 각 팀의 총점을 계산하여 승패를 나누는 것도 게임과 같은 느낌을 주어 흥미있게 토론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토론에 참여하지 않고 토론을 경청하는 학생들은 토론참여 학생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준비해 온 토론참여 학생 8명의 찬성과 반대 의견을 고루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었다. 또한 찬성과 반대자가 각 각의 토론을 한 후에 전체 3점으로 점수를 나누어 배점함으로써 비교를 통하여 논리성과 논거의 적절성, 진술의 태도를 평가·확인하게 하였다. 이는 자신의 토론 시에 주의해야 할 점으로 인지하게 되는 효과를 보였으며, 주어진 논제를 여러 각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다각적 접근이 가능하게 하였다.

토론에 직접 참여한 학생들은 자신이 속한 팀의 토론내용과 자신의 발표문을 정리하도록 하였고, 토론을 듣는 학생들은 토론활동 평가지를 통해 각 학생들의 토론 내용을 정리하고 배점하도록 하여, 점수와 승패에 영향을 끼친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봄으로써 논술의 여러 요소들을 다시 한번 파악하게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1차 논술문을 조절하여 2차 논술문을 완성할 때 더 논리적이고 객관적이며 설득력 있는 논술문이 되도록 하는 효과를 볼 수 있었다.

< 그림 V-7 > 토론단계 활동 평가지

(4)차 토론활동 평가지

논제 성형과 다이어트 열풍, 미를 추구하는 현대인, 진정 자신을 위한 일인가?
 팀 자신의 욕망 vs 팀 타인의 욕망

찬성발제자	반대발제자	찬성논박자	반대논박자	반대정리자	찬성정리자
예쁘고 날씬한 여자 더 대우, 못생긴 사람은 무시, 같은 행동을 두고 다른 평가, 성형과 다이어트 노력	성형은 남을 의식하는 일, 좋은 결과 X, 현대인들의 다이어트, 성형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성형은 흉터를 고치는 것도 포함-컨플렉스를 없애준, 인터넷의 발달로 자신표현-경쟁력, 성형은 사회의 관심	사소하고 변덕스러움,	인간의 모습은 있는 그대로 아릅다운, 혼의 정신에 어긋남, 사회적인 미적 기준이 달라져야 함	미를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 현대사회에서 힘모는 경쟁적인, 신체부위의 걱정 덜어줌
(2)점	(1)점	(2)점	(0)점	(2)점	(1)점

-논리 : 핵심논리가 분명하고 체계적이다.(1점)
 -논거 : 논거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이다.(1점)
 -진술 : 태도가 어색하지 않고 설득력있다.(1점)

★ 우승팀 (자신의 욕망팀) ★ 최우수토론자 (400)
 ☆ 평가자 : 학번 (2001) 이름 (김00)

(5) 2차 논술문 쓰기(개별활동)

읽기자료를 파악한 후 작성한 1차 논술문을 퇴고하여 작성하도록 하였다. 1차에서 작성한 논술문은 읽기자료와 자신의 스키마를 활용하여 작성한 논술문임에 비해서 2차에서 작성하는 논술문은 상호평가(침삭)의 과정을 거치고, 공통된 논제를 가지고 준비한 토론에 직접 참여하거나 청중으

로서 토론을 평가한 후에 하는 마무리로서의 마지막 활동이다. 여러 단계를 통하여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평가하면서, 자신의 주장과 논거를 풍부히 하고 적절성을 탄탄히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퇴고의 과정으로서 마지막 단계인 2차 논술문을 작성하게 한다. 이 후 학급구성원들과 2차 논술문을 돌려가며 읽도록 하여 정리된 논술문을 접하게 하고, 다음 회차의 논술문에 피드백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2차 논술문 작성이 끝나면 교사와 논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토의과정을 거치고, 각 학생들의 논술문에 연구자가 첨삭하였다. 이 역시 다음 회차의 논술문 작성에 피드백하여 지속적이고 긍정적으로 논술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이었다.

1차 논술문에 비해 <그림 V-9>의 2차 논술문은 상호첨삭과 토론의 과정을 거쳐 다듬어진 글이라 볼 수 있다. 사용하고 있는 용어도 본인의 스키마에서 넘어서서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용어(예:여성우대→양성평등)를 사용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여러 사례들을 더 많이 제시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에 대한 탄탄한 근거를 보이려는 노력을 볼 수 있다. 생각의 깊이나 너비도 좀 더 깊어지고 다양한 견해를 드러내려는 모습도 확인해 볼 수 있다. 1차에서는 여성우대에 대한 반대의 근거로 두 가지(새로운 남성차별에 대한 우려, 현 사회에서는 남녀차별이 없음)를 들고 있다. 그러나 2차에서는 그 두 가지 근거에서의 좀 더 깊은 사고를 통한 논의가 나타나고 있으며, 그와 더불어 현재 여성우대로 인한 피해로 ‘레이드 퍼스트’의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다.

< 그림 V-8 > 1회차 1차 논술문

논술 글(짧은 글) 쓰기

논제 1) “남성보다 여성을 우선적으로 대우해야 한다.”를 논제로 하여 300자 (10문장) 논술 글을 적어 봅시다.

- 10번 신○○

서 론	<p>4▶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우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p> <p>10▷ 국가에선 법을 만들면서까지 여성을 우대를 해주고, 또 여성을 위한 단체도 있다.</p>
본 론	<p>2▶ 그런데도 여성은 아직도 자신들이 차별받다고 생각한다.</p> <p>5▷ 하지만 이건 여성들의 지나친 생각이다. 여태껏 여성들이 차별받은 것은 맞지만, 요즘은 세상이 바뀌고 있다.</p> <p>6▷ 더 이상 여성을 우대해 주다가 남성의 고통이 더 커질 것이다. 더 이상 성차별로 인한 희생과 고통은 없어야 한다.</p> <p>3▶ 요즘은 세상이 바뀌어서 여성이 하던 일을 남성이 하고, 남성이 하던 일을 여성이 한다.</p> <p>7▷ 더 이상 직업에 있어서 남녀차별이 없다.</p> <p>8▷ 그만큼 직업도 다양해져서 남녀차별은 더 이상 없다.</p>
결 론	<p>1▶ 더 이상의 여성우대는 더 큰 남녀차별이므로 없어야 한다.</p> <p>9▷ 그러므로 나는 남성보다 여성을 우선적으로 대우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p>

< 그림 V-9 > 1회차 2차 논술문

논술 글(짧은 글) 쓰기

문제 1) “남성보다 여성을 우선적으로 대우해야 한다.”를 주제로 하여 300자 (10문장) 논술 글을 다시 한 번 퇴고하여 적어 봅시다.

서 론	<p>4▶ 우리나라에서는 양성평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p> <p>10▷ 국가에서는 양성평등을 위해 법도 만들어져 있으며, 또 여성을 위한 단체도 있다.</p>
본 론	<p>2▶ 양성평등을 위해 여성들을 너무 우대하다보니 그것에 너무 익숙해져 여성들은 자신이 받고있는 대우에 대해 잘 느끼지 못하며 아직도 차별받는다고 생각한다.</p> <p>5▷ 하지만 이건 여성들의 지나친 생각이다. 여태껏 여성들이 차별받은 것은 맞지만, 요즘은 세상이 바뀌어 남자가 오히려 차별을 받기도 한다.</p> <p>6▷ 더 이상 여성을 우대해 주다간 남성의 고통이 더 커질 것이다. 더 이상 성차별로 인한 희생과 고통은 없어야 한다.</p> <p>3▶ 요즘은 세상이 바뀌어서 여성이 하던 일을 남성이 하고, 남성이 하던 일을 여성이 하기도 하고, 그만큼 직업도 다양해져서 더 이상 직업에 있어서 남녀차별이 없다.</p> <p>7▷ 하지만 여성들은 자신이 복리할 때마다 ‘레이디퍼스트’를 외치며 똑같은 잘못을 해도 자신들은 여자라며 피한다.</p> <p>8▷ 반면에 좋은 것은 자신들이 먼저 하려는 이기주의를 보인다.</p>
결 론	<p>1▶ 따라서 남성보다 여성을 우선적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p> <p>9▷ 양성평등을 원한다면, 여성이 우대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먼저 버려야 한다.</p>

다. 마무리단계 - 8주. 논술활동에 대한 평가 및 설문

전체 논술활동을 마무리하는 단계로 1, 2주에 걸쳐 학습한 논술의 개념 및 방법과 절차에 대해 다시 한 번 학습하도록 하였다. 논술을 직접 경험하기 전에 접했던 논술의 개념이나 방법과 절차를 학습하던 때와는 달리 직접 논술에 참여해 본 후의 학습은 논술의 여러 이론을 파악하는 데 충분한 자극이 되었다. 막연히 생각하던 논술의 여러 단계를 직접 경험해봄으로써 실제로 적용되었던 논술의 여러 방법과 유의사항들을 체험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다.

토론의 과정을 동영상으로 갈무리한 동영상 전체적으로 관람하면서 직접 토론에 참여한 학생은 자신의 토론활동을 살펴봄으로써 잘된 점과 그렇지 못한 점을 찾아내고, 좀 더 논리적이고 바람직한 토론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 노력할 여러 사항들에 대해 확인하고 평가하도록 하였다. 직접 토론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은 자신의 듣기활동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확인하고 평가하도록 하였다.

3-7주에 걸쳐 작성한 자신의 논술문을 포트폴리오로 구성하여 스스로의 발전정도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짧은 기간 안에 단 5회에 걸쳐 활동하여 확연하고 뚜렷한 변화를 확인할 수는 없었으나 논술에 대한 자신감이나 흥미도는 스스로 높아졌다는 인식을 보였다. 이와 같은 변화는 사후 설문을 실시하였고, 설문의 내용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논술에 대한 자신의 태도 및 능력의 변화정도를 파악하도록 하였다.

3. 실제 활동 후의 태도변화 및 효용성 검증

실제 프로그램을 적용 후 논술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와 논술능력의 향상

정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학급활동을 통한 통합적 논술교육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해 보았다. 더불어 통합적 논술 교육을 위해 국어교과와 국어교사가 해야 할 여러 과제들을 파악해 보았다.

가. 설문을 통한 논술태도의 변화

실제 7주에 걸친 논술활동을 거친 후에 논술에 대한 생각이나 태도의 변화 정도를 설문지²⁰⁾를 통해 조사하였다.

- 설문대상 : 실제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자 남학생 20명, 여학생 18명
(총 38명)

- 설문시간 : 8주차 마무리 단계의 시간을 활용하여 실시

- 설문내용

질문 1 : 논술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호감도)의 변화

질문 2 : 논술능력의 향상 인식 정도

질문 2-1 ; 논술능력의 향상 분야

질문 3 : 학급활동을 통한 논술의 효과 여부

질문 4 : 논술방법의 습득 여부

질문 5 ; 논술 각 단계 중 향상 부분

질문 6 ; 논술 실시 후에도 가장 자신없는 부분

질문 7 : 논술을 잘하기 위한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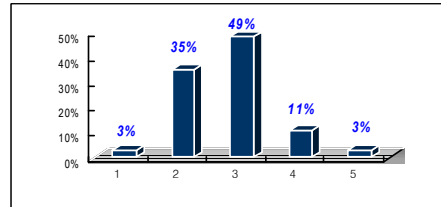
질문 8 : 논술프로그램에 대한 흥미도

질문 9 : 가장 효과적인 프로그램의 단계 선택

20) 부록 1의 3)에 첨부하였다.

【 질문 1 】 : 논술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호감도)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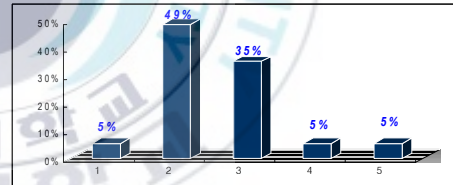
1. 논술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해결해야 하는 주어진 과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쓰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게 되었습니까?
- ① 아주 재미있었다. (1 명)
 - ② 재미있는 편이었다. (13 명)
 - ③ 보통이었다. (18 명)
 - ④ 재미없는 편이었다. (4 명)
 - ⑤ 아주 재미없었다. (1 명)



논술에 대한 생각의 변화를 묻는 질문에 ‘보통이었다.’의 응답을 포함하여 많은 비율의 학생(87%)의 학생이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고 답하고 있다. ‘보통이다’의 응답을 제외하고도 38%의 학생이 논술을 재미있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의견을 표시해 주었다는 것은 이 프로그램이 논술에 대한 동기유발 및 인식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질문 2 】 : 논술능력의 향상 인식 정도

2. 논술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논술능력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합니까?
- ① 많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한다. (2 명)
 - ② 비교적 향상되었다고 생각한다. (18 명)
 - ③ 보통이라고 생각했다. (13 명)
 - ④ 대체로 향상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2 명)
 - ⑤ 향상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2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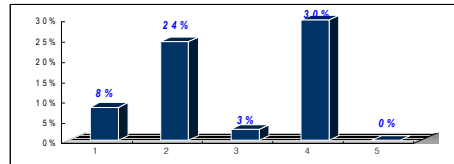


논술능력의 향상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수의 학생이 ‘비교적 향상되었다.’고 답해주었다. 실제 논술능력평가에서도 전반적으로 논술문의 평가점수가 상향된 것과 연계하여 생각해 볼 때, 학생 스스로도 자신의 논술능력의 향상을 인지하고 있으며 실제 능력도 향상되었다는 점은 본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대상자 스스로도 논술의 능력 향상이 심리적으로 인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 질문 2-1 】 ; 눈술능력의 향상 인식 정도

2-1. 향상되었다면 어떤 점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합니까?

- ① 종합적인 사고능력이 향상되었다. (3 명)
- ② 쓰기(자기표현)를 잘 할 수 있게 되었다. (9 명)
- ③ 창의적인 사고능력이 향상되었다. (1 명)
- ④ 눈술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11 명)
- ⑤ 눈술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 (0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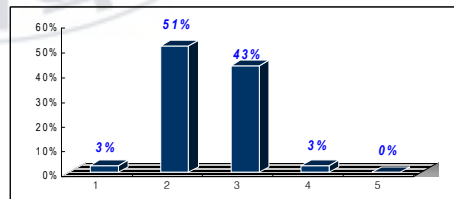


위 질문 2의 하위 문항으로서 위의 문항에서 향상되었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응답한 문항이다. 그 중 가장 많은 비율의 학생이 실제 눈술활동에 접해보므로써 눈술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이루어졌다고 응답하였고, 스스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종합적 사고능력은 눈술에 대한 인지가 실제 눈술활동을 기본적인 바탕으로 이룬 후에 나타날 수 있는 능력이므로 비율로 보아서는 세 번째로 향상되었다고 응답하고 있으나, ④번과 ②번의 문항과 연계하여 생각해 본다면 앞의 두 문항의 능력 향상을 바탕으로 나타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더 깊은 의미를 찾을 수 있다.

【 질문 3 】 : 학급활동을 통한 눈술의 효과 여부

3. 학급활동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눈술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합니까?

- ① 매우 효과적이라 생각한다. (1 명)
- ② 비교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19 명)
- ③ 보통이라고 생각한다. (16 명)
- ④ 효과가 없다고 생각한다. (1 명)
- ⑤ 전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한다. (0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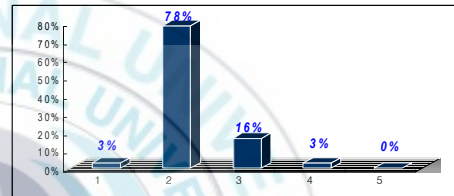
본 연구의 눈술프로그램이 학급활동을 통한 지속적 활동이었다는 측면에서 그 효과에 대해 질문하였다. 본 프로그램이 눈술능력과 태도에 긍정적 변화를 보였다는 것과 더불어 학급활동으로서도 그 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많은 수의 학생(19명)이 ‘비교적 효과가 있었다.’고 답함으로써 본 연구의 효과를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사

전설문에서도 학생들을 16%나 학급활동을 통해 논술을 접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는 점과 연계하여 볼 때 학급활동을 통한 논술교육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대한 꾸준한 연구와 적용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중등교육과정 자체가 학급이라는 형태를 바탕으로 모든 교육활동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도 학급활동을 통한 논술교육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 질문 4 】 : 논술방법의 습득 여부

4. 논술프로그램을 통해 논술의 방법을 알게 되었다고 생각한가?

- ① 잘 알게 되었다. (1명)
- ② 조금이라도 알게 되었다. (29명)
- ③ 보통이다. (6명)
- ④ 알게 된 바가 없다. (1명)
- ⑤ 오히려 해가 되었다. (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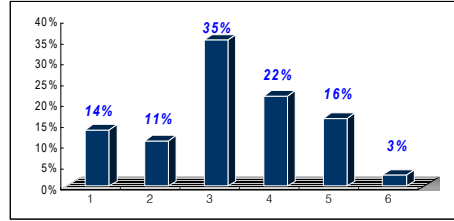
앞의 문항에서 논술을 인지하게 되었다는 응답과 더불어 본 문항에서 논술의 방법을 알게 되었다는 답에 거의 몇 몇의 학생을 제외한 대부분의 학생이 의견을 나타냄으로써 실제 논술활동을 통한 경험적 방법 체득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진다. 논술은 논술에 대한 이론적 배경이나 원리를 습득하는 것도 중요하나, 이를 여러 논제와 연관지어 실제로 활동해봄으로써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학습자 스스로가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학습자가 논술활동의 기본적인 방법을 터득하게 함으로써 앞으로도 자기주도적으로 더 심층적인 논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바탕이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 질문 5 】 ; 논술 각 단계 중 향상 부분

5. 이번 논술프로그램을 통해 가장 많이 나아진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① 주제 및 소재 정하기
- ② 논거 정하기
- ③ 개요작성하기
- ④ 글구성하기
- ⑤ 표현하기
- ⑥ 글다듬기

- (5 명)
- (4 명)
- (13 명)
- (8 명)
- (6 명)
- (1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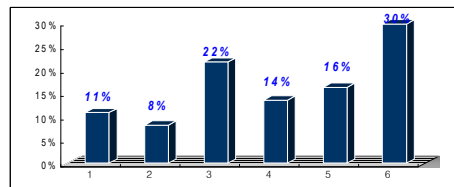
본 프로그램을 통하여 논술에 대해 막연히 생각하고 활동에 임했던 것과는 달리 각 단계를 거쳐 논술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논술활동 중 각 부분에 대해 미리 개요를 작성하는 과정에 대해 향상되었다는 학생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글구성하기’와 ‘표현하기’의 순으로 향상부분을 선택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논술문 작성학습지가 개요짜기의 사고과정을 중심으로 작성하도록 구성되어있다. 본 프로그램의 초기에 학습자들은 논술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두서없이 구조를 갖추지 못한 채 글을 구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개요짜기의 사고과정에 따라 글의 구성순서를 파악하면서 개요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글을 구조적으로 구성하는 과정을 거쳐 논술문을 작성함으로써 개요에 대한 개념과 실제 작성하기의 능력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상호참석이나 토론의 과정을 거쳐 여러 다른 학생들의 글이나 발표를 듣고 자기만의 표현에서 벗어나 실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어려움이나 두려움을 극복한 결과도 함께 나타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 질문 6 】 ; 논술 실시 후에도 가장 자신없는 부분

6. 이번 논술프로그램 후에도 가장 자신없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 ① 주제 및 소재 정하기
- ② 논거 정하기
- ③ 개요작성하기
- ④ 글구성하기
- ⑤ 표현하기
- ⑥ 글다듬기

- (4 명)
- (3 명)
- (8 명)
- (5 명)
- (6 명)
- (11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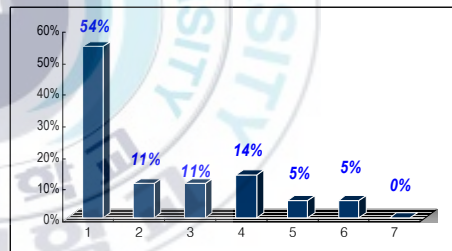


논술활동 실시 이후에도 계속 어렵게 여기는 논술의 단계에 대한 물음에는 마지막 단계의 ‘글다듬기’에 가장 많은 수의 학생(30%)이 답해주었다. 작성한 글을 퇴고하고 정교하게 다듬어 좋은 논술문을 완성하는 세심한 작업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결과로 보여진다. ‘개요작성하기’의 단계에 대해서는 앞의 문항의 응답과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가장 많은 수의 학생이 ‘개요작성하기’ 단계의 향상을 경험하였다는 것과 비교하여, 나머지 다른 단계의 향상에 응답한 많은 수의 학생이 역시 ‘개요작성하기’가 어렵다는 응답을 보였다. ‘개요작성하기’의 단계는 글의 전체 구조를 결정짓는 단계이므로 논리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과정의 활동이 활발히 일어나는 단계여서 논술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전히 어렵다고 느끼고 있었다.

【 질문 7 】 : 논술을 잘하기 위한 방법

7. 앞으로 논술을 더욱 잘 하기 위한 좋은 방법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 ① 독서를 많이 한다. (20 명)
- ② 논술이론을 공부한다. (4 명)
- ③ 토론을 많이 한다. (4 명)
- ④ 많이 써 본다. (5 명)
- ⑤ 국어(쓰기)시간에 열심히 한다. (2 명)
- ⑥ 첨삭지도를 받는다. (2 명)
- ⑦ 기타 () (0 명)



이 문항은 논술능력의 향상을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할 부분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가장 많은 학생(54%)이 독서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논술을 구성할 때 소재와 논거로 활용하는 기본지식의 부족을 스스로 직면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논술교육이 독서교육과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방법적 방향을 제시해준다고 볼 수 있겠다. 또 본 프로그램에서 실시하였던 지속적 논술문 작성(14%), 논술이론 학습(11%), 토론(11%) 방법이 각각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으며 이 세 가지를 합하면 36%의 많은 학생들이 직접 논술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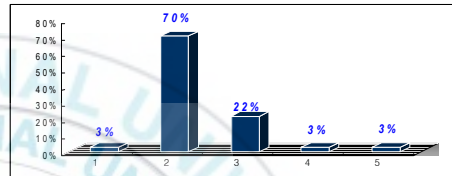
에서 적용해 본 여러 방법에 대한 효과를 인정한 것이라 볼 수 있겠다.

여전히 독서를 논술의 주요한 사전단계로 생각하고 있으나, 사전설문과 비교해보면 67%에서 54%로 독서에 대한 집중도는 다소 떨어진 반면, 나머지 논술이론학습, 토론, 논술직접쓰기와 같은 다른 항목의 중요성이 전체적으로 이전에 비해 좀 더 부각된 것으로 보인다.

【 질문 8 】 : 논술프로그램에 대한 흥미도

8. 이번 논술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이 어땠습니까?

- ① 쉽고 재미있었다. (1 명)
- ② 어려운 편이었지만 재미있었다. (26 명)
- ③ 보통이었다. (8 명)
- ④ 쉬웠지만 재미없었다. (1 명)
- ⑤ 어렵고 재미없었다. (1 명)



전체적인 본 프로그램에 대한 느낌을 물어본 결과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 (94%)가 보통이상으로 ‘재미있었다.’고 응답하였고, 70%의 학생들은 ‘어려운 편’이었다고 답하였다.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주어진 논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글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는 종합적 문제해결 방법은 학생들에게 다소 어려운 과제로 느껴지기는 하였으나, 어려운 것과는 별개로 흥미를 느낄 수 있었다는 점이 프로그램 자체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나. 논술문의 향상 정도의 검증

3주차에 실시한 1회 논술의 2차 논술문과 7주차에 실시한 5회 논술의 2차 논술문을 논술기준표에 맞춰 평가하였다. 평가자는 3명의 국어교사가 동일한 평가기준을 가지고 각 학생들의 논술문을 평가하여 중간점수를 비교하였다. 각 교사의 점수를 모두 합산하여 각 학생들의 1회 논술문과 5회

논술문의 평가항목의 향상정도를 비교·분석하여 본 프로그램의 효용성을 검증하였다.

각 문항별 항목을 A, B, C, D, E의 5등급으로 나누어 평가하였고, 배점은 점수의 비율에 따라 10%씩 차등 점수를 부여하여 총점을 산출하였다. 예로 논증력 항목은 하위 항목이 두 항목이므로 전체 점수를 각각 20점으로 나누어 부여하고, 20점은 등급에 따라 20, 16, 12, 8, 4점의 점수를 부여하였다. 항목별 향상정도를 비교하기 위하여는 A, B는 양호, C는 보통, D,E는 미흡으로 분류하여 향상정도를 비교하였다.

< 표 V-3 > 논술문 평가기준표

구 분	
이해분석력	· 1-1(10점) : 무엇을 묻고 있는지에 대해 알고 있는가?
	· 1-2(10점) : 제시문을 정확히 파악하고 활용하는가?
논증력	· 2-1(20점) : 자신의 주장이 분명히 드러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논거가 뒷받침되고 있는가?
	· 2-2(20점) : 논리적 구조가 체계적이고 조직적인가?
창의력	· 3-1(10점) : 주장이나 논거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이며, 깊이가 있는가?
	· 3-2(10점) : 다양한 논거를 제시하고 있는가?
	· 3-3(10점) : 참신하고 독창적으로 전개하는가?
표현력	· 4(10점) : 표현이 매끄럽고 자연스러우며, 어법에 맞는가?

< 그림 V-10 > 1회차 논술문과 5회차 논술문 비교

- 2번 김○○ 양

1회차 2차 논술문

인류 시대에서는 남녀평등사회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남성을 더 우대하고 있다.

인구를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다. 소수의 인구인 여성을 우대해 줘야 한다. 여자의 몸모나 나이를 봐서 뽑지 말아야 한다.

여성의 권리가 남성의 권리보다 약하다. 여성의 진출을 고운 시선으로 보지 못한다. 여자라고 무시하거나 차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므로 남성보다 여성을 우선적으로 대우해야 한다. 여성에게 똑같은 권리를 줄 때 남녀평등을 이뤄야 한다.

5회차 2차 논술문

‘여우와 신포도’의 이솝우화에 나오는 여우를 어리석다고 비판하는 것은 옳지 못한 생각이다. 되지도 않는 일을 시도하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다.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 말라’는 속담이 있다. 여우도 배가 무척 고프고 상태였기 때문에 포도를 먹기 위해 갖은 여러 방법을 다 사용했던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무조건 기다리고 계속 무모하게 도전하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다. 차라리 다른 먹은 것을 찾는 것이 현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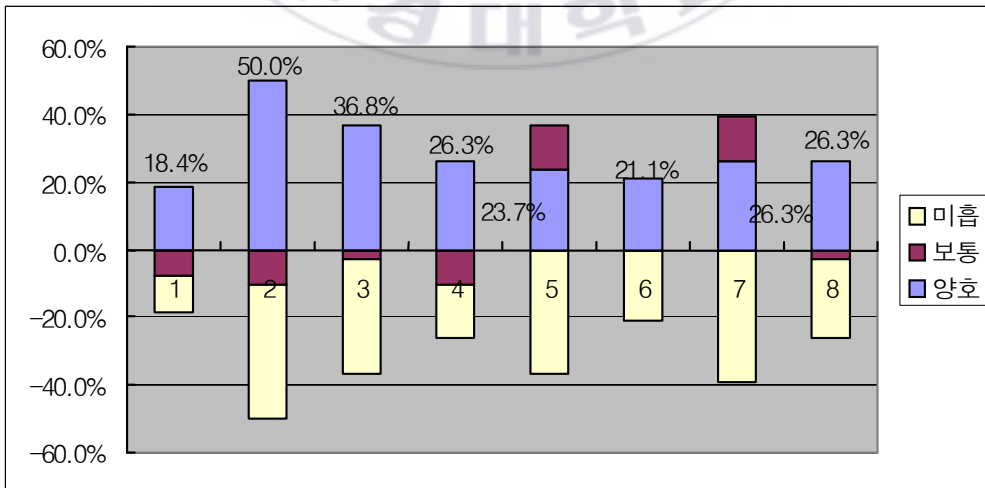
끈기있게 노력하는 것 또한 훌륭하지만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계속 기다리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시간도 한 번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는 재산이고, 계속 기다리기만 하면 어리석게 굶어죽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포도를 포기한 여우의 행동은 현명하다. 여러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평가할 수도 있지만 열심히 노력해도 안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2번 김○○ 양의 1회차 논술문과 5회차 논술문을 비교하여 보면 실제 5 단계를 통한 5회차의 논술활동이 학생들의 논술능력 향상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볼 수 있다. 1회차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 뿐만 아니라 문장과 문장 사이의 논리적 연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표현에 있어서도 문장과 문장 사이의 연결이 매우 어색하다.

그러나 5회차 논술문에서는 1회차 논술문에서의 문제점들이 많이 보완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문에서의 두 가지 주장도 정확하게 제시되고 있다. 또한 문장과 문장 사이의 연결도 여러 단계의 활동과 5회에 걸친 글쓰기 활동을 통하여 적절한 연결어를 활용하여 유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반대되는 견해에 대한 반박도 드러나고 있어 설득력 있게 서술되고 있다. 아직도 미흡한 여러 부분들이 보이고 있으나 1회차 논술문에 비해서는 확연하게 논술의 깊이와 다양성, 그리고 논리적 구성력이 나아진 점을 찾아볼 수 있다.

< 그림 V-11 > 논술능력의 향상정도 분석 그래프



< 표 V-4 > 학생 1차 논술문과 5차 논술문의 평점 비교

(N=38) 작품수
비율

구분 (평가항목)	하위 항목	1차 평점			5차 평점		
		양호	보통	미흡	양호	보통	미흡
이해분석력	1-1	25 65.8%	7 18.4%	6 15.8%	32 84.2%	4 10.5%	2 5.3%
	1-2	10 26.3%	11 28.9%	17 44.7%	29 76.3%	7 18.4%	2 5.3%
논증력	2-1	10 26.3%	14 36.8%	14 36.8%	24 63.2%	13 34.2%	1 2.6%
	2-2	19 50.0%	9 23.7%	10 26.3%	29 76.3%	5 13.2%	4 10.5%
창의력	3-1	9 23.7%	12 31.6%	17 44.7%	18 47.4%	17 44.7%	3 7.9%
	3-2	15 39.5%	12 31.6%	11 28.9%	23 60.5%	12 31.6%	3 7.9%
	3-3	4 10.5%	13 34.2%	21 55.3%	14 36.8%	18 47.4%	6 15.8%
표현력	4	15 39.5%	10 26.3%	13 34.2%	25 65.8%	9 23.7%	4 10.5%

<표 V-4>와 <그림 V-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생들의 논술능력도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첫째, 이해분석력의 항목에 논제의 정확한 파악과 충실한 정도의 1-1에서는 65.8%의 양호 비율이 84.2%로 향상되었으며, 미흡의 비율이 5.3%로 현저하게 감소하였음을 보아 논제파악능력이 명확히 향상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제시문에 대한 이해와 활용정도의 1-2의 항목에서는 1차 평점 당시 28.3%만이 양호의 비율로 나타났으나 2차 평점 이후 63.2%로 매우 큰 변화를 보였다. 8개의 항목 중 1-2의 항목의 양호비율 증가율(50%)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속적인 논술작성을 통해 논제에서 요구하는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어진 읽기자료와 제시문을 활용하여 논술문을 작성하는 논술의 기본 능력이 크게 향상된 결과라 볼 수 있다.

둘째, 논증력의 항목에서도 적절하고 분명한 주장으로서의 2-1의 근거제시 능력이 양호의 항목에서 36.8%의 증가비율을 보여 두 번째로 많은 향상을 보이고 있다. 논거설정능력은 상호침삭과 토론의 활동을 통하여 서로의 의견을 주고 받으면서 실제로 구체적이거나 논리적 타당성을 가진 근거들을 논술문에 반영하는 능력이 향상된 결과로 볼 수 있겠다. 전체 논술문을 논리적 구조로 조직하는 2-2의 항목도 26.3%의 비율로 세 번째로 많은 향상비율을 보였다. 이는 논술문 작성시 먼저 논리적 사고과정에 따라 순서대로 개요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전체글의 구성능력이 향상된 결과라 보아진다. 이 두 항목을 통하여 논리적 사고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특히 논증력의 항목은 다른 항목에 비해 각 하위 영역을 20점씩 부여하여 실제로 평균점수를 산출할 때 다른 여러 항목보다 중요하게 다루어 전체 평점의 향상정도에도 깊은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창의력의 경우는 각 세 항목 모두 이해분석력과 논증력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비율의 향상정도를 보였다. 그러나 세 항목 모두 양호의 작품수의 향상 비율이 20%를 넘어서 창의성 신장에도 긍정적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른 평가기준에 비해 다소 낮은 향상정도를 보이는 이유는 본 프로그램이 개별적 활동이 집중되고 활발하게 이루어져야하는 제약을 넘어서지 못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볼 수 있겠으나, 전체 활동의 토론과정이나 개별 활동의 침삭 및 사고활동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접하게 됨으로써 자신이 아닌 타인의 사고에 대해 경험하고 여러 견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로서의 의미가 있다.

넷째, 표현력의 경우도 26.3%의 많은 비율로 양호 작품수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다. 1차 논술문을 통해서 는 어눌하고 문법에 맞지 않는 문장의 표현이 대부분이었으나, 5번에 걸친 논술문 작성, 특히 1차와 2차에 걸친 퇴

고과정과 침삭과정을 통하여 표현력의 향상이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겠다.

< 표 V-5 > 1회 논술문과 2회 논술문의 평균점수 비교
(항목별 점수)

평가항목	1-1	1-2	2-1	2-2	3-1	3-2	3-3	4-1	총점
1차 평균	7.5	5.6	11.5	12.7	5.5	6.2	5.0	6.1	60.1
2차 평균	9	8.3	15.9	16.7	7.3	7.6	6.6	8.0	79.4
비교차	+ 1.5	+ 2.6	+ 4.4	+ 4.0	+ 1.8	+ 1.4	+ 1.6	+ 1.9	+ 19.3

<표 V-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항목이 각 각 향상된 점수차를 보이고 있다. 논증력 항목의 하위 항목인 2-1과 2-2는 다른 항목에 비해 각각 2배인 20점이 부여되었고, 각 급간별 차이도 다른 항목(2점)에 비해 4점씩 차이를 두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차를 분석해보면 역시 위에서 살펴본 도표의 양호, 보통, 미흡의 평점의 변화와 같은 양상을 확인해볼 수 있다. 전체 총점이 19.3의 높은 향상을 보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효과를 확인해 볼 수 있다.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이해분석력과 논증력, 창의력 및 표현력의 각 항목 모두 의미있는 향상결과를 보였으며, 특히 제시문을 파악하고 활용하는 논증력의 향상이 가장 큰 변화를 보임으로써 지속적인 논술교육이 주어진 논제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VI. 결론

현대 사회는 무한히 많은 지식과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이다. 그러한 지식과 정보를 가치있게 만드는 것은 사람의 몫이다. 사람은 많은 지식과 정보를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지식과 정보로 만들어낸다. 가치있는 지식과 정보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어진 상황에서 문제에 대한 합리적 해결능력과 논리적이고 설득력있는 사고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러한 과정을 거친 지식과 정보야말로 현대 사회에서 가치있는 정보라 할 수 있다.

또한 현대사회는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 공간이다.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 의사소통과정이며, 의사소통과정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이 교환되고 정반합의 단계를 거쳐 여러 문제들의 해결방안도 도출된다. 여러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어 자신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표현능력이 필요하게 되며, 특히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설 수 있는 논술이야말로 이러한 상황에 가장 적절한 매체이다. 따라서 논술교육은 학문을 연구하는 방법이나 진학 시 평가의 잣대로써 필요할 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인재를 양성하는데 필수불가결한 교육 분야이다.

현재 실제 교육과정상에서는 국어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논술교육도 작문시간의 일부를 빌리거나 특별활동의 형태로 겨우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논술교육을 통해 얻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인 문제해결력 증진이나 논리적 사고력을 증진시키는 측면에서는 논술교육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여러 연구 결과에 의해 논술교육의 필요성이 입증되고 있고, 또 개발된 논술교육의 여러 모형들도 교육적 효과를 입증받고 있으나 논술교육의 중요성의 인식에 비해 실제 논술교육은 현실성 있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의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앞의 여러 연구결과를 뒷받침하는 논술교육의 필요성과 현 논술교육의 문제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연구자는 본 연구를 통하여 언어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의 중요한 영역인 말하기, 듣기, 읽기의 모든 과정을 아우를 수 있는 논술 영역의 통합적 학습모형을 학급활동을 통하여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8주에 걸친 모형을 통하여 논술교육의 동기부여, 기본학습 활동, 5회에 걸친 실제 논술 활동, 마무리 활동을 단계별로 구안하고 적용하였다. 또 실제 적용한 방안을 통하여 학생들의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논술의 평가항목 중 이해력과 논증력의 능력이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논술은 쓰는 이의 세계관과 세계 이해 방법을 드러내는 방식이다. 논술 능력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방식을 익히고 학습하여야 하는 학생, 특히 기본적인 자아가 형성되는 시기로,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과 타인의 생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여 문제의 해결을 논리적으로 할 수 있는 논술교육은 매우 필요한 교육 분야이다. 논술의 제재로 다루지는 여러 문제들은 내용이나 교과와 상관없이 학교현장에서 모든 교사와 교육과정에 의해 통합적으로 교육되어야 한다. 따라서 먼저 논술교육에 대한 논술교육에 대해 교육과정상에 참여하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든 교육 주체들의 적극적인 태도변화가 시급하다. 또한 모든 교사가 논술교육에 적절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기 위해 여러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며, 언어를 교육하는 국어교사들은 선두주자로서 모든 교사들에게 실천적 적용방법을 전수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더불어 논술교육을 위한 교사들의 자질 함양을 위한 다각도의 프로그램들과 학교교육과정의 제도적 지원, 실제 활동을 위한 교재나 자료의 개발 등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국내 단행본

- 강태완 외(2001), 토론의 방법,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창호(1999), 내가 아는 것이 진리인가, 웅진출판
- 신관수 외(2008), 토론·논술 직무연수자료, 부산시남부교육청
- 원진숙(1998), 논술교육론, 박이정
- 이흥우(1997), 지식의 구조와 교과, 교육과학사
- 정기철(1999), 논술교육과 토론, 역락출판사
- 정길정·연준흠(1997), 협동수업(Team Teaching) 지도론, 한국문화사
- 채영희(2003) 말하기 듣기 교육의 실제, 부경대 출판부
- 최현섭 외(2001), 국어교육학 개론, 삼지원
- 허운나(1987), 교육방법과 교육공학, 정민사
- 앙드레 베르체즈, 드니 위스망 공저(2003), 프랑스 고교철학 I(인간학·철학·형이상학), II(인간과 세계), III(지식과 이성), IV(실천과 목적), 삼협종합출판부

2. 논문

- 김길영(2000), 고등학생 논술문 지도방안 연구-창의성 신장을 중심으로, 동아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김선영(1997), 고등학교 논술교육과 지도방안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김한성(2007), 독서토론을 통한 통합논술 지도방안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연구원 보고서.
- 곽유진(1996), 통합교과적 논술지도 방안연구, 홍익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박주영(1992), 읽기와 쓰기 통합지도 방안연구, 한국교원대 대학원 석사논문.

문

- 박철준(1997), 논술문 짓기 지도, 배달말교육, 배달말교육학회 학술저널.
- 성낙수(2000), 중등학교 논술교육에 대하여, 한국어문교육, 한국교원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학술저널 Vol.9.
- 신정민(2006), 비판적 사고함양을 위한 통합교과형 논술지도법 연구, 서울
시립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우형식(2000), 임홍준, 자기 주도적 논술 능력 신장을 위한 교수·학습 모
형의 개발, 교육논총,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술지.
- 이경선(2003), 논술 지도 방법 연구-종합적 사고를 중심으로, 단국대 교육
대학원 석사논문
- 이기행(1998), 고등학교 논술지도 연구, 전남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이남주(2000), 효율적인 논술 지도 방법 연구-협동수업과 통합교육을 중심
으로, 동국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이영희(1999), 중학생을 위한 소집단 활동 중심의 쓰기교육 연구, 순천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이지윤(2007), 통합적 언어활동을 활용한 논술지도 방안 연구, 한국교원대
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이형근(2003), 논술교육을 위한 쓰기영역의 지도방안 연구, 국민대 교육대학
원 석사논문.
- 이향욱(1995), 중학교 쓰기교육의 실태 분석과 지도방법 연구,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이희숙(2004), 중학교 쓰기 영역의 수행평가 실태와 개선방안, 홍익대 교육
대학원 석사논문.
- 최형기(2001), 효과적인 논술지도방법에 관한 연구-중학교 논술, 작문을 중
심으로, 원광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부록 1. 설문지

1) 사전 설문지(교사용)

논술교육을 위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현장에서 교육에 여념이 없으신 선생님들께 논술교육과 관련하여 설문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 설문조사는 교육에 대한 연구 논문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쓰이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문항에 답해주시고 간단한 물음에도 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경대학교 국어교육전공 박주애

성 별 : 남 , 여
교직경력 : 년
담당교과목 :
담임교사 여부 : ○ , ×

1. 중학교에서 논술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필요하다
 - ② 필요한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별로 필요하지 않다.
 - ⑤ 필요하지 않다.

1-1. 필요하다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학업에 도움을 준다.
- ② 사회생활에 도움을 준다.
- ③ 진학에 도움을 준다.
- ④ 종합사고력에 도움을 준다.
- ⑤ 기타()

2. 현재 중학교에서 논술교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① 개별적 교육과정으로 운영된다.
- ② 교과(국어, 사회) 관련하여 운영된다.
- ③ 학급활동을 통하여 운영된다.
- ④ 방과후 활동을 통하여 운영된다.
- ⑤ 모든 교육과정을 통해 통합운영된다.

3. 현재 학교에서 논술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 ②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 ③ 보통이라고 생각한다.
- ④ 대체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
- ⑤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

☞ 뒤에 계속

4.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운영시간 부족
 ② 교사들의 연수기회 부족
 ③ 교육자료 및 교재 부족
 ④ 평가에 대한 문제
 ⑤ 학생과 교사의 동기 및 흥미부족
 ⑥ 기타()
5. 학교에서 논술교육은 누가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관련교과 교사
 ② 담임교사
 ③ 방과 후 담당교사
 ④ 개인적 개별지도
 ⑤ 모든 교사의 통합적 지도
6. 논술을 교육에 직접 적용해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7. 선생님께서는 논술을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아주 잘한다고 생각한다.
 ② 비교적 잘한다고 생각한다.
 ③ 보통이라고 생각한다.
 ④ 대체로 못한다고 생각한다.
 ⑤ 아주 못한다고 생각한다.
8. 선생님께서는 논술의 방법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잘 알고 있다.
 ② 비교적 알고 있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모른다.
 ⑤ 거의 모른다.
9. 선생님께서는 논술교육의 방법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잘 알고 있다.
 ② 비교적 알고 있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모른다.
 ⑤ 거의 모른다.
10. 중학생들이 논술을 잘 하기 위한 좋은 교육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독서를 많이 하게 한다.
 ② 토론을 많이 하게 한다.
 ③ 논술을 많이 써보게 본다.
 ④ 첨삭지도를 받게 한다.
 ⑤ 평가의 방법으로 활용한다.
 ⑥ 관련교과시간에 열심히 하게 한다.
 ⑦ 기타()
11. 중학교에서 학급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논술교육을 한다면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② 비교적 효과적일 것이다.
 ③ 보통이다.
 ④ 비교적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⑤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 ♥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사전 설문지 (학생용)

논술교육을 위한 설문지

중학교 논술교육의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 설문조사는 연구 및 교육개선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쓰이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문항에 답해주시고 간단한 물음에도 답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학년 ()반 ()번 ③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
남() 여() ④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⑤ 기타()

1. 해결해야 할 주어진 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쓰는 것(논술)을 좋아합니까?

- ① 좋아한다
- ② 좋아하는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싫어하는 편이다.
- ⑤ 싫어한다.

2. 자신은 논술을 잘한다고 생각합니까?

- ① 아주 잘한다고 생각한다.
- ② 비교적 잘한다고 생각한다.
- ③ 보통이라고 생각한다.
- ④ 대체로 못한다고 생각한다.
- ⑤ 아주 못한다고 생각한다.

1-1. 질문1에서 좋아한다면 왜 좋아합니까?

- ① 쓰기에 취미가 있다.
- ② 쓰기에 소질이 있다.
- ③ 글쓰는 시간이 재미있다.
- ④ 글쓰기를 통해 칭찬을 듣는다.
- ⑤ 기타()

3.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논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 ① 매우 중요하다
- ② 중요한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 ⑤ 중요하지 않다.

1-2. 좋아하지 않는다면 왜 좋아하지 않습니까?

- ① 쓰기는 힘들다.
- ② 쓰기에 흥미가 없다.

뒤에 계속

3-1. 중요하다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 ① 생각하는 능력이 길러지므로
- ② 글짓기 능력이 길러지므로
- ③ 자기표현을 잘할 수 있으므로
- ④ 다른 학습에도 도움이 되므로
- ⑤ 고교나 대학입시에서 사용되므로
- ⑥ 기타()

3-2. 중요하지 않다면 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 ① 시험에 나오지 않아서
- ② 쓰기 할 기회가 없어서
- ③ 쓰기에 흥미가 없어서
- ④ 평가에 반영되지 않아서
- ⑤ 기타()

4. 학교에서 논술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4-1. 학교에서 논술을 해본 적이 있다면 학교에서 논술교육은 어떻게 합니까?

- ① 국어시간 진도에 맞춰 공부한다.
- ② 논술시간을 따로 정하여 한다. (방과후 수업 포함)
- ③ 각 교과시간에 통합적으로 공부한다.
- ④ 학급시간을 활용한다.
- ⑤ 숙제나 가정학습으로 대체한다.

⑥ 특별활동시간을 활용한다.

⑦ 특별히 하지 않는다.

⑧ 기타()

5. 논술의 방법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 ① 잘 알고 있다.
- ② 비교적 알고 있다.
- ③ 보통이다.
- ④ 대체로 모른다.
- ⑤ 거의 모른다.

6. 논술에서 가장 자신없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 ① 주제 및 소재 정하기
- ② 논거 정하기
- ③ 개요작성하기
- ④ 글구성하기
- ⑤ 표현하기
- ⑥ 글다듬기

7. 논술을 잘 하기 위한 좋은 방법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 ① 독서를 많이 한다.
- ② 논술이론을 공부한다.
- ③ 토론을 많이 한다.
- ④ 많이 써 본다.
- ⑤ 국어(쓰기)시간에 열심히 한다.
- ⑥ 첨삭지도를 받는다.
- ⑦ 기타()

♥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 사후설문지(학생용)

논술교육을 위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함께 한 논술 프로그램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을 알아보고자 하는 설문지입니다. 설문지를 잘 읽고 솔직하게 여러분의 의견을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년 ()반 ()번
남() 여()

① 종합적인 사고능력이 향상되었다.

② 쓰기(자기표현)를 잘 할 수 있게 되었다.

1. 논술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해결해야 하는 주어진 과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쓰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게 되었습니까?

- ① 아주 재미있었다.
- ② 재미있는 편이었다.
- ③ 그저 그랬다.
- ④ 재미없는 편이었다.
- ⑤ 아주 재미없었다.

③ 창의적인 사고능력이 향상되었다.

④ 논술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⑤ 논술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

2-2. 재미도 없고 도움이 안 되었다면 어떤 점이 그랬습니까?

① 예전과 같이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② 여전히 논술이 어렵다.

③ 이런 활동이 지속되지 않는다.

④ 성적에 반영되지 않는다.

⑤ 기타()

2. 논술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논술능력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합니까?

- ① 많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한다.
- ② 비교적 향상되었다고 생각한다.
- ③ 보통이라고 생각했다.
- ④ 대체로 향상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 ⑤ 향상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3. 학급활동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논술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합니까?

① 매우 효과적이라 생각한다.

② 비교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③ 보통이라고 생각한다.

④ 효과가 없다고 생각한다.

⑤ 전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한다.

2-1. 향상되었다면 어떤 점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합니까?

☞ 뒤에 계속

4. 논술프로그램을 통해 논술의 방법을 알게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 ① 잘 알게 되었다.
- ② 조금이라도 알게 되었다.
- ③ 보통이다.
- ④ 알게 된 바가 없다.
- ⑤ 오히려 해가 되었다.

5. 이번 논술프로그램을 통해 가장 많이 나아진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① 주제 및 소재 정하기
- ② 논거 정하기
- ③ 개요작성하기
- ④ 글구성하기
- ⑤ 표현하기
- ⑥ 글다듬기

6. 이번 논술프로그램 후에도 가장 자신없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 ① 주제 및 소재 정하기
- ② 논거 정하기
- ③ 개요작성하기
- ④ 글구성하기
- ⑤ 표현하기
- ⑥ 글다듬기

7. 앞으로 논술을 더욱 잘 하기 위한 좋은 방법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 ① 독서를 많이 한다.
- ② 논술이론을 공부한다.

③ 토론을 많이 한다.

④ 많이 써 본다.

⑤ 국어(쓰기)시간에 열심히 한다.

⑥ 첨삭지도를 받는다.

⑦ 기타()

8. 이번 논술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이 어땠습니까?

① 쉽고 재미있었다.

② 어려운 편이었지만 재미있었다.

③ 보통이었다.

④ 쉬웠지만 재미없었다.

⑤ 어렵고 재미없었다.

♥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2. 개요짜기 및 실제 논술문 쓰기의 예시 및 활동 학습지²¹⁾

1. 줄기잡기 및 개요짜기의 예시

예시문) 다음 이야기를 읽고, 우리 생활에서 운동할 때 일어나는 부정적인 면을 예로 들어 운동정신이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하시오.

우리 학교 행사에서 가장 큰 행사라면 체육대회를 꼽습니다. 여러 경기를 통해 학급 성원의 단결심을 과시하기도 하지만, 솔직히 ‘입시’라는 울타리에서 하루쯤 벗어나 마음껏 땀을 흘릴 수 있다는 것이 더 큰 매력이지요. 어쨌든 체육대회 없는 학교는 상상하기 싫어요. 그런데 승부라는 것이 묘해서 경기를 하면 꼭 이기고 싶지요. 3학년 선배들이 심판은 보는데 선배들은 아는 후배가 있는 편을 드는 것 같더군요. 그래서 판정에 응하지 않는 때가 많은 편입니다. 어떤 때는 판정 때문에 담임 선생님들끼리 다투시다가 심하면 학급 선수를 데리고 경기장 밖으로 나갑니다. 체육대회가 끝나고도 오래도록 그 선생님들은 서로 인사도 안하시더군요.

☞ 줄기잡기

서론	3) ‘운동’이라는 용어가 부정적으로 안 되는 때가 많다.
본론	2) 운동이 지닌 원 목적을 상실하고 꼭 이기려고만 할 때 문제가 생긴다.
결론	1) 운동은 운동으로 끝나야 한다.

☞ 완성된 개요 (문장 구성 순서)

- 7) 운동은 심신을 단련하여 삶에 활력을 주는 것이 주목적이다.
- 3) 그러나 요즘은 ‘운동’이라는 말 자체가 부정적으로 안 되는 때가 있다.
- 2) 운동이 지닌 원 목적을 상실하고 꼭 이기려고만 할 때 문제가 생긴다.
- 4) 예를 들어 학교에서조차 경기가 라열되어 학급 사이에 갈등이 깊어지기도 한다.
- 5) 어떤 때는 프로 경기단을 운영하며 지역 연고를 들먹여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경우도 있다.
- 6) 운동이 정정당당함을 잃을 때 즉거움은 커녕 오히려 고통일 뿐이다.
- 1) 따라서 운동은 순수하게 운동으로 끝나야 하며 승부에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

1 / 2

21) 「너무나도 쉬운 논술」(한효석)의 ‘구상과 개요짜기’의 내용을 인용한 2007학년도 겨울방학 토론논술의 직무연수 49p

2. 줄기잡기 및 개요짜기의 활동지

연습문 1) 다음 문제를 읽고 글 한 편을 쓸 수 있도록 주어진 문장 개요에 한 문장씩만 더 덧붙임해 보시오.

우리나라에서는 ‘민족’이라는 말을 위대한 가치로 떠받드는 경향이 많다. 그러나 그 굴레에서 모든 사물을 평가하다보면 지나치게 보수적인 태도를 지니기도 쉽다. 지나친 보수적 행동의 예를 들고 우리 민족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서술해보시오.

☞ 줄기잡기

서론	4) 세계는 다민족 국가시대로 가고 있다. 8) →
본론	2) ‘민족’이 긍정적으로는 정신적 밑바탕으로 자리잡았다. 5) → 3) ‘민족’이 지나쳐 부정적 영향을 끼치면 보수적이 되기 쉽다. 6) →
결론	1) 민족적 편견과 독선에서 벗어나야 한다. 7) →

연습문 2) 최근 우리나라 시장을 외국에 개방하여 수입이 자유로워지면서 외국 상품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그런데 한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절반 이상은 품질이 같은데 값이 싸다면 외국제품을 사겠노라고 대답하였다. 이것은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들의 애국심에 호소하는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소비자의 심리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기 위한 개요를 작성해보시오.

☞ 개요잡기

서론	4)
본론	2) 3)
결론	1)

부록 3. 여러 교과와 관련된 활용 가능한 다양한 논제들

【 국어 】

1. ‘놀부’와 ‘흥부’, 「원미동사람들」(양귀자)의 ‘경호 아버지’, ‘싱싱 사내’, ‘김 반장’의 사람을 대하는 태도 중 현대 사회에서 가장 바람직한 사람의 유형은 누구인가?
2.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통신언어(외계어), 우리에게 유익한가?
3. 내가 「GO」(재일교포 가네시로 가즈키)의 ‘나’라면 나는 권투를 하겠는가?

【 사회 】

1. 소비를 해야 경제가 산다.
2. 광안대교 불꽃 축제는 계속되어야 한다.
3. 지하철의 노약자석은 유지되어야 한다.
4. ‘윤재의 일기’(중3사회, 2. 민주시민과 경제생활-금성출판사)에서 나는 ‘원더걸스’를 선택할 것인가? ‘최홍만’을 선택할 것인가?

【 도덕 】

1. 나보다 남을 우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
2.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3. 가난은 개인적 책임이 크다.
4. 비현실적 목표에 의한 불행은 옳은가?
5. 제자리로 돌아와야 이기는 윗놀이처럼 ‘출발-귀환’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의미를 주는가?

【 수학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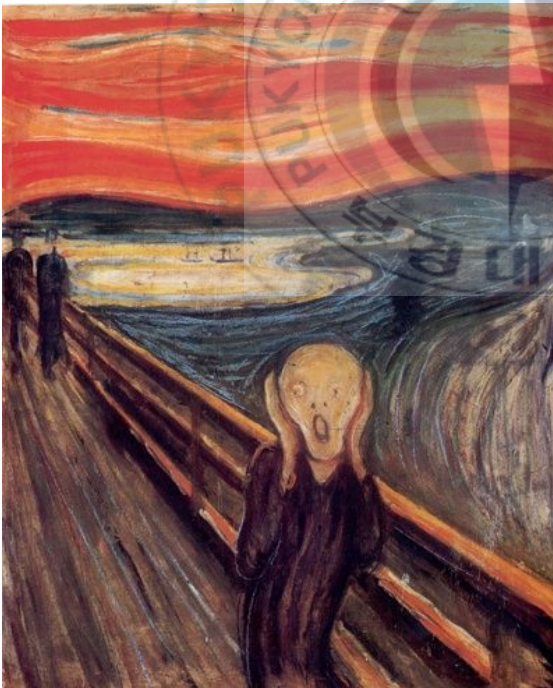
1. 0이라는 숫자는 필요한가?
2. 49/91(91분의 49)는 약분할 수 있는가?

【 과학 】

1. 과학의 문제는 과학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2. 동물복지는 인정되어야 한다.
4. 풍력발전단지는 인간에게 유익한가?
5. 인간을 위한 자연개발, 과연 인간을 위한 일인가?

【 예술 】

1. 연극을 영화로 만드는 일은 바람직한가?
2. 조선시대의 유명한 풍속화 ‘타작’(김홍도)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에 대비하여 조선시대 민화 ‘까치와 호랑이’(작자미상)의 두 동물은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가?
3. 몽크의 ‘절규’라는 작품은 ‘출발’이라는 단어와 관련지을 수 있는가?



4. 영화 ‘괴물’에 나오는 마지막 장면의 ‘강두’와 ‘세진’을 보면서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논의해보자.

【 시사 】

1. 양심적 병역거부는 인정되어야 한다.
2. 군경력 가산점을 인정해야 한다.
3. 테러집단과도 협상해야 한다.
4. 고등학생의 이성교제는 부정적이다.

【 교육 】

1. 야간 자율학습은 필요하다.
2. 0교시 수업은 필요하다.
3. 특목고는 폐지되어야 한다.
4. 내신반영비율을 확대해야 한다.
5. 고등학교 평준화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6. 왕따는 개인적 책임이 크다.
7. 의무교육제도는 확대되어야 한다.

【컴퓨터】

1. 가상공간의 모든 글은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2. 'E-스포츠'를 스포츠로 인정해야 하는가?
3. 인터넷 '악플' 이대로 관촬은가?
4. 음악협회와 '소리바다'의 싸움, MP3 파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5. 무한히 생산되고 폐기되는 컴퓨터, 환경에 관촬을까?

부록 4. 통합논술교육의 자료를 참고할 수 있는 사이트들

강호영의 논술교실 <http://my.dreamwiz.com/ghdud99/>
경기도교육청 논술사이트 <http://nonsul.goedu.kr/>
경상북도교육청 논술교실 <http://www.kben.org/>
교컴지기 <http://eduict.org/>
구술닷컴 <http://www.goosul.com/index.html>
김덕곤의 언어·논술 학교 <http://user.chollian.net/~hk1119/>
김수범의 고교논술 <http://hinonsul.wo.to/>
논술로 명문대가기 <http://cafe.naver.com/nsgo.cafe>
논술뱅크 <http://www.nonsulbank.co.kr/>
논술!학교논술시대 <http://cafe.naver.com/mykksik>
독서평설 <http://www.dokpyeong.co.kr/>
돌베개 국어와 논술 <http://cafe.naver.com/nonsulwang>
문선생언어논술 <http://cafe.daum.net/mmkorea>
아젠다넷 <http://agendanet.co.kr/>
얼쭈언어논술연구소 <http://cafe.daum.net/hurrah2>
우리말 배움터 http://urimal.cs.pusan.ac.kr/urimal_new/
유타환의 진학실 <http://my.dreamwiz.com/yootolee/>
이지논술 <http://www.easynonsul.com/>
장세완의 논술사랑 <http://www.nonsullove.org/>
조진만 언어·논술교실 http://www.jojinman.com/new_site/index.asp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학진학정보센터) <http://univ.kcue.or.kr/>
한두레 통합논술카페 <http://cafe.naver.com/tgnonsul22>
EBS 논술구술 <http://ebsi.co.kr/>